



작은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친구, 로그인! 절교? 로그아웃!!

— 초등중학년 힐링 독서지도안 —

허 정 희

수원정자초등학교

친구, 로그인! 절교? 로그아웃!!

- 초등중학년 힐링 독서지도안 -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에서는 갈등은 주로 친구관계에서 비롯되며 학교폭력도 친구 간의 이해와 소통의 부재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여전히 수면 위에 떠있는 이슈로 자리 잡았다. <③ ‘어둠의 그림자’ - 학교폭력의 현주소/부산일보, 2013. 10. 4., 벼랑 끝 교육, 희망 사다리를 찾아서 中>라는 기사를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3배로 증가됨을 볼 수 있다. 이는 누구나 학교 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학생들의 바른 인성교육과 감성의 정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친구와 실제 일어난 상황별 힐링스토리를 접목하여 간접경험을 주고자 한다. 개인 혹은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상황의 문제를 다룬 힐링스토리는 당면한 상황을 즉시하고 문제해결을 통한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 따라서 친구관계 힐링스토리 프로그램은 힐링스토리에 시를 접목하여 친구문제에 접근하는 다양한 시각을 얻게 하여 당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더 나은 친구관계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프로그램 구성

- 기 간 : 2015. 8. 13 ~ 11. 4. (총 12차시)
- 운영 시간 : 매주 목요일, 16:00 ~ 17:30

- 참여 대상 : 초등 3~4학년
- 운영 장소 : 석수골작은도서관

3. 자료 선정 기준

- 힐링스토리는 친구사귀기, 왕따, 놀림, 다툼, 인기, 외모, 이성 친구, 경쟁심, 성격, 이해와 배려의 주제를 다룬 실제 일어난 이야기창작 자료로 친구관계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힐링스토리로 선정한다. 그 외의 주제별 선정도서는 다음과 같다.
- 1차시 도서 : 「우리, 친구하자」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과정을 엮은 도서로 친구사귀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친구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며 친구는 관심과 배려가 그 전제가 됨을 우회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 2차시 도서 : 「큰 늑대 작은 늑대」는 친구와 사귀는 관계 맺는 과정을 정적으로 그린 도서이다. 나보다 못났지만 친구가 되는 장면에서 잔잔한 우정의 감동까지 전해 준다. 서로 다른 두 늑대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친구가 되는 과정을 찾아보도록 한다.
- 3차시 도서 : 「까마귀 소년」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는 소년을 통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해보고 이해와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역할극을 통해 상처를 주고 받는 경험을 진솔하게 풀어 낼 수 있도록 한다.
- 4차시 도서 : 「수요일의 괴물」은 놀림당하는 친구를 위해 용기를 내어 도와주는 이야기를 다룬 동화이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친구를 돕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도서이다.
- 5차시 도서 : 「행복한 똥보 댄서」는 똥똥한 외모를 가지고도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주인공을 통해 친구들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그른지 생각해보게 하는 도서이다. 친구들이 놀림에도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주인공을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는 바람으로 선정하였다.

- 6차시 도서 : 「괴롭히는 친구 무찌르는 법」 괴롭히는 친구와 친구 관계를 원만히 하는데 독특한 방법의 재미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그림책이다. 새 친구를 사귀고 좋은 친구관계를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줍니다. 친구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와 더 좋은 친구관계로 유지하고 싶은 친구에게 유용한 도서이다.
- 7차시 도서 : 「순가락」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해 하게 하는 책이다. 풀이 죽어 있는 순가락에게 장점을 부각시켜 자신감을 키워준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다른 아닌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돕는 도서이다.
- 8차시 도서 : 「돌려 줘, 내 모자」는 친구들의 다른 성격을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도서이다. 친구들은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사는 개성이 있는 존재들이다. 이 도서는 그 친구의 성격을 이해하고 더 나은 친구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 9차시 도서 : 「겁쟁이 빌리」는 인디언에게 전해 오는 ‘걱정 인형’을 소재로, 아이의 불안한 심리와 상상력, 사물에 대한 배려 등을 다룬 그림책이다. 걱정과 고민이 있는 아이들, 고민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자는 빌리의 이야기를 통해 친구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용기 내어 친구에게 문제를 상의하고 그것도 힘들다면 나만의 친구를 만들어 볼 수 있게 한다.
- 10차시 도서 : 「너무 부끄러워」는 부끄럼이 너무 많아서 자신감을 잃어 가는 아이로 하여 아이의 성격과 개성 문제를 다룬 그림책이다. 하지만 부끄럼을 극복하고 활발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럼 많은 성격에도 커다란 장점이 있다고 북돋워 준다. 아이들도 각자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만의 개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 11차시 도서 : 「길아저씨 손아저씨」는 서로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채워주며 살아가는 권정생 작가의 도서이다. 서로 배려하고 나눈다면 진정한 우정을 키울 수 있으며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어떤 우정을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토의해 본다.

4. 운영 방법

‘절교? 로그아웃!!’ 프로그램은 친구들의 관계 맺기, 친구와의 갈등, 친구 이해하기, 우정다지기의 4가지 주제로 총 12차시로 계획하여 진행된다.

1차시부터 2차시에는 프로그램 소개와 서약서 외에도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관계맺기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3차시부터 6차시까지의 친구와의 갈등을 주제로 당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놀림과 왕따에 대한 활동을 통해 이해와 용기를 전달하도록 구성하였다. 7차시부터 10차시는 친구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친구는 모두 다름을 알고 배려하고 이해하여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11차시에서 12차시는 우정을 다시는 차시로 지혜롭게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배려와 나눔이 우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차시별로 친구 상황별 힐링스토리 14편이 각 차시별 자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실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동일시 과정을 이끌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진행된다.

본 프로그램은 힐링스토리에 하부르타 대화법을 접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이 질문하고 토론함으로써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표현활동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시를 창작함으로써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도록 한다.

5. 프로그램 평가 방법

- 대인관계능력검사는 친구를 사귀고 친구의 의사소통과 갈등상황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신은정(2011)이 초등학교 아동수준의 발달단계에 알맞게 일부 수정한 것이다. 대인관계능력은 관계 맺기 능력, 긍정적 의사소통, 문제해결의 3개의 하위 영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능력 검사의 사전, 사후 검사를 진행하여 비교함으로써 참여자의 변화를 살펴본다.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는 프로그램 참여 후 학생들의 흥미와 인식,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로 구성한다. 수업이 즐거웠는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책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 외에도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기억에 남는 것과 보완할 것을 간단하게 작성하도록 구성하였으며 프로그램 활동 후 알게 된 점, 도움이 된 점, 변화된 점으로 구성된다.

6. 프로그램 세부 계획

차시	주제	세부목표 및 선정자료	활동내용
1	우리, 친구하자 !	◎ 목표 : 용기를 내어 친구 사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 자료 ✎ 힐링스토리 「친구 사귀기 어려워!」 📖 「우리, 친구하자/쓰스리요리코/한림출판사」	- 프로그램 소개 - 대인관계능력검사 - 자기소개하기 - 서약해요!작성하기 - 힐링스트리하부르타 - 나도 시인!(시쓰기)
2	친구란?	◎ 목표 : 힐링스토리를 통해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친구가 되는 과정을 알아본다. ◆ 자료 ✎ 힐링스토리 「행동이 굼떠서 같이 하기 싫어요」 📖 「큰 늑대 작은 늑대/나딘 브뤼코슴/시공주니어」	- 힐링스트리하부르타 - 나는 이런 친구가 좋아 작성하기 - 비밀 회전북 만들기 - 관찰활동지 - 나도 시인!(시쓰기)
3	나도 힘들어!	◎ 목표 : 어떤 말과 행동이 상처를 주는지 알아보고 이해와 관심이 왕따를 없앨 수 있음을 안다. ◆ 자료 ✎ 힐링스토리 「놀리지마」 📖 「까마귀 소년/야시마 타로/비룡소」	- 힐링스트리하부르타 - 너도 한 번 놀림을 당해봐!! - 너에게 선물을 줄게! - 나도 시인!(시쓰기)
4	괴물이 있다고!	◎ 목표 : 놀림당하고 왕따 당하는 친구를 위해 용기를 내어 도와 줄 수 있다. ◆ 자료 ✎ 힐링스토리 「나도 힘들어요」 📖 「수요일에 괴물/다니엘르시마르/개암나무」	- 힐링스트리하부르타 - 괴물카드 천사카드 - 환상의 짝꿍 이어주기 - 나도 시인!(시쓰기) - 카드놀이하기
5	그래, 이해할게!	◎ 목표 : 친구와의 다른 면을 알아보고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친구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다. ◆ 자료 ✎ 힐링스토리 「네가 뭐 잘난 줄 알아?, 부러진 앞니」 📖 「행복한 동보댄서/조외슬랑/개암나무」	- 힐링스트리하부르타 - 친구 송 개작하기 - 나도 시인!(시쓰기) - 친구 송 콘테스트

차시	주제	세부목표 및 선정자료	활동내용
6	문제가 있다고?	◎ 목표 : 괴롭히는 친구를 찾아 해결법을 찾아 보고 지혜롭게 사귀는 방법을 찾아본다. ◆ 자료 ✎ 힐링스토리 「좋은 말 할 때 그냥 주지?」 📖 「괴롭히는 친구 무찌르는 법/데릭 먼슨/정글짐북스」	- 힐링스트리하부르타 - 나도 시인!(시쓰기) - 카나페 만들기
7	우리 모두는 달라요	◎ 목표 : 친구들 모두가 다름을 알 수 있고 꿈도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 ◆ 자료 ✎ 힐링스토리 「절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왜 시험 날 자꾸 아플까요?」 📖 「술가락/에이미 크루즈 로젠탈/지경사」	- 힐링스트리하부르타 - 모둠별 퀴즈하기 - 장점나무 작성하기 - 나도 시인!(시쓰기)
8	꾸물대는 친구는 싫다고!	◎ 목표 : 친구와 문제가 생겨도 화내지 않고 친구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다. ◆ 자료 ✎ 힐링스토리 「서둘러야 할 때 꾸물대는 친구 아영이!», 「나도 내가 답답해」 📖 「둘려 줘, 내 모자/우메다 슌사쿠/시공주니어」 📖 「행복한 어깨동무/정명희/아동문예사」	- 힐링스트리하부르타 - 환상의 짝꿍 이어주기 - 나도 시인!(시쓰기) - 친구벤티만들기
9	용기낼 수 있어	◎ 목표 : 친구에게 용기 내어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다. ◆ 자료 ✎ 힐링스토리 「텔레비전 이젠 금지야!!」, 「핸드폰 달란 말이야!」 📖 「겍쟁이 빌리/앤터니 브라운/비룡소」	- 힐링스트리하부르타 - 나도 시인!(시쓰기) - 퍼니콘으로 나만의 친구 만들기
10	들리니? 내 마음이?	◎ 목표 : 여러 성격을 알아보고 성격이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 자료 ✎ 힐링스토리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 📖 「너무 부끄러워/크리스틴 나우만 빌맹/비룡소」	- 힐링스트리하부르타 - 나는 명탐정!! - 나도 시인!(시쓰기) - 이구동성 우리말
11	우리는 베프!	◎ 목표 : 서로 배려하고 나눈다면 진정한 우정을 키울 수 있다. ◆ 자료 ✎ 힐링스토리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어려워요」 📖 「길아저씨 손아저씨/권정생/국민서관」	- 힐링스트리하부르타 - 나도 시인!(시쓰기) - 대인관계능력검사 - 우리는 베프 미션 수행하기
12	친구들과 함께!	◎ 목표 :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자유롭게 마무리한다. ◆ 자료 ✎ 개인별 시 원고 ✎ 차시별 힐링스토리 ✎ 차시별 활동자료	- 시 퇴고하기 - 프로그램 소감문 - 변환된 점 발표하기 - 느낀 점 발표하기 - 편지쓰기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우리, 친구하자!	세션	1	시간	90분
세부 목표	○ 용기를 내어 친구 사귀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본다. ○ 서약서와 대인관계능력 검사지를 작성한다.				
선정 자료	▶ 힐링스토리 「친구 사귀기는 어려워」 ▶ 도서 「우리 친구하자/ 쓰스리 요리코/ 한림출판사/ 1994」				
준비물	힐링스토리, 대인관계능력검사지, 서약서, 미스(미스터)코리아 활동지, 필기도구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50')	① 프로그램 소개 및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부터 12차시로 『친구 로그인, 절교 로그아웃!』 프로그램을 진행할 000입니다. 힐링스토리는 초등학교에서 실제 일어난 이야기를 창작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친구관계에 있어 문제가 생길 경우 그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도록 돕고 더 나은 친구관계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② 대인관계능력 사전검사 실시 -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체크하도록 합니다. ③ 미스(미스터)코리아 자기소개하기 - 학년, 반, 이름, 취미 넣어 전라도, 경상도, 서울버전 중에 선택하여 “나는 미스코리아 ~ 예요”로 소개하도록 합니다. ④ ‘서약해요’ 작성하기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최선을 다하여 즐겁게 수업을 하고자 약속을 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 귀 기울여 듣고 비교하지 않으며 친구를 이해할 수 있나요? 모든 생각과 느낌을 서슴없이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나요?				
전개 (60')	① 힐링스토리 「친구 사귀기는 어려워」스토리텔링 - 인서는 수순이 맞고 마음이 맞는 친구와 사귀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친구들도 인서처럼 친구를 가려 사귀어 적 있나요? - 내가 인서라면 어떤 친구를 사귀어 갈까요? - 친구 사귀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② 힐링스토리 친구 사귀기는 어려워」하부르타 - 유대인의 교육 하부르타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고 학생들의 궁금한 점을 들어봅니다.				

	- 힐링스토리 하부르타 질문의 예시를 들어줍니다. - 우선 친구들에게 질문의 예시를 보여주고 모두 같이 궁금한 점을 내 보도록 합니다.	
	◎ “우리 친구하자”를 돌아가며 읽고 토의를 진행한다. - 첫 수업이므로 퀴즈를 내어 학생들을 격려하고 학생들과 의견을 나눕니다. - 기억나는 장면을 찾고 이유를 설명해 봅니다. - 전학을 하거나 새로운 학년이 되어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친구들은 무엇이 제일 걱정이 되었나요? - 아름이와 여자아이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친구 사귀 경험에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친구를 사귀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봅니다. - 친구와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나도 시인!! - 친구들은 시를 뭐라고 생각하나요? - 예 맞아요. 친구들, 시는 여러 글쓰기 중 하나의 장르입니다. 친구들이 본 모든 것, 자연이나 살면서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친구들만의 언어로 줄여서 그대로 풀어 놓은 글입니다. 그럼 동시는 아이들이 쓰는 시를 말하겠죠? - 또래 친구들의 동시를 예를 들어 읽어줍니다. 읽어주며 사소한 것도 모두 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 첫 만남의 느낌 그대로 습작노트에 남겨 놓기로 합니다. - 쓴 시를 발표합니다.	
정리 (10')	◎ 힐링스토리, 하부르타, 시에 대한 내용 정리하며 느낌 나누기 ◎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하고 뒷정리하기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학교 - 친구 - 친구 사귀기】

친구는 사귀기 어려워!

인서는 공부와 책읽기를 좋아하고 엄친아처럼 보이는 4학년 학생이에요. 하지만 친구들과과는 놀지 않아요. 그러면서 잘난 척, 즐거운 척해요. 음, 좋게 말하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어린이라고 해야 될지요?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질문으로 수업을 자기 맘대로 이끌고 아이들과 사이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며 자기는 친구들과는 상관없다고 하는~자기만 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인지 친구들은 인서를 보면 멀리합니다.

“인서, 개 이상하지 않아? 세상을 혼자 사는 거 같이 행동하잖아. 아무래도 좀 이상해.”

그런 인서를 친구들은 무시하거나 아예 말을 걸지 않고 지나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인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생각과 놀아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친구가 중요한긴 하지만 친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인서였어요.

그런 인서가 매일 들리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학교도서관입니다. 특히 책을 좋아하는 인서는 희망도서 신청부터 시작해서 도서관 도서관구입에도 적극적이에요. 친구가 없는 인서는 쉬는 시간마다 대출을 하기 위해 달려오곤 합니다.

한 번은 사서선생님이 인서를 홍보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침시간에 여자애들이 삼삼오오 도서관 구석으로 들어가서는 인서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흥을 보는 것이었어요. 마침 인서가 도서관으로 들어왔어요.

“인서야, 너 가장 친한 친구 누구니?” “왜요?”

“인서 너 친구 없니?”

“친구가 왜 필요해요? 선생님은 친구 있어요?”

“친구 없으면 외롭거나 심심하지 않아? 참, 인서야. 선생님이 프로젝트 하나 진행하는데 인서가 도와줬으면 해서, 대신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와야 하거든.”

“아, 선생님, 제 친구는 책으로 하면 안 될까요?”

“뭐여? 그래도 친구가 있으면 좋지. 한 번 생각해보고 와. 노력하지 않는 친구관계는 금방 깨져버리거든. 되는 대로, 기본대로 친구를 사귀면 후회할지도 몰라.”

“....., 선생님, 생각해보고 내일 올게요.”

인서는 갑자기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인서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친구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냥 평범한 아이들을 친구들로 사귀느니 안 사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자신만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웬만하면 바뀌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마음이 맞는 것이 중요한 걸까? 아니면 잘난 것이 중요한 걸까?”

“그럼 친구 한 명만 데리고 오면 되나요?”

“그렇지. 인서야, 힘들면 안 해도 돼. 그리고 친구만이 상대가 필요하단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친구가 되니까 말이야. 오늘은 친했다가 내일은 싸우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보렴.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친구니까.”

“네, 알겠어요. 선생님, 제가 친구 사귀어서 데리고 올게요.” 무언가 깨달았다는 듯이 인서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교실로 올라갔습니다.

활동지 ①

미스(미스터)코리아 소개하기

1. 서울 버전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학년) ()입니다.
 취미는 ()이구요. 장래 희망은 ()입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2. 경상도 버전

안녕하시유. 지는유. (학년) ()이네유.
 취미는 ()이구유. 장래 희망은 ()이에유.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구만유... 행복한 하루 되시어유~
 잘 부탁드립니다유~~

3. 전라도 버전

앗따, 안녕하셔라~~잉. 지는 (학년) ()이지라~
 앗따, 시방 내 취미는 ()이요잉. 나는 커서 ()가
 되고 싶소잉
 쫘깨~ 잘봐주이소잉!!

활동지 ②

서약해요!

서약해요!

학년 이름 :

나는 ‘친구 로그인! 절교? 로그아웃’ 프로그램을
함께 있어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첫째, 최선을 다해 즐겁게 수업한다.

둘째, 나는 ‘친구 로그인! 절교? 로그아웃’ 수업을 하며
나와 생각이 달라도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한다.

셋째, 모든 생각과 느낌을 서슴없이 정직하게 표현한다.

넷째,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다섯째, ‘친구 로그인! 절교? 로그아웃!!’ 프로그램에서 들은
것은 절대로 밖에서 이야기 하지 않는다.

여섯째, _____

참여자 ()는 위의 약속을 꼭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2015 년 월 일

서약자 : (인)

활동지 ②

대인관계능력검사

♣ 다음 문항은 대인관계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V 표시 하세요.

	질문 내용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실수로 당황하는 친구를 보면 격려해주고 안심시켜준다.	1	2	3	4	5
2	물건을 친구들과 나누어 쓰며, 협동하며 생활한다.	1	2	3	4	5
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친구가 많다고 느낀다.	1	2	3	4	5
4	잘 모르는 친구에게도 쉽게 말을 걸 수 있다.	1	2	3	4	5
5	친구와 다툼이 있을 때 먼저 사과하는 편이다.	1	2	3	4	5
6	친구와 싸웠을 때 화해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7	친구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다.	1	2	3	4	5
8	친구는 꼭 필요하다.	1	2	3	4	5
9	다른 사람과 잘 사귀며 상대가 편하도록 맞춰준다	1	2	3	4	5
10	내가 화가 났을 때 친구를 비난하기보다 나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편이다.	1	2	3	4	5
11	친구가 묻는 말에는 항상 친절하게 대답한다.	1	2	3	4	5
12	나는 친구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잘 기억하는 편이다.	1	2	3	4	5
13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집중하며 잘 듣는다.	1	2	3	4	5
14	친구들 앞서 말하는 것이 떨리지 않는다.	1	2	3	4	5
15	친구들이 이야기 할 때 항상 눈을 마주치고 듣는 편이다.	1	2	3	4	5
16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1	2	3	4	5
17	나는 친구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의견을 윗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1	2	3	4	5
18	나에게 부당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내 권리를 주장한다.	1	2	3	4	5
19	힘든 일이 생기면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1	2	3	4	5
20	친구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다시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기 보단 해결방법을 찾는다.	1	2	3	4	5
21	문제가 생겼을 때 싸우기 보단 대화로 풀어나가는 편이다.	1	2	3	4	5
22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의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3	친구들과 놀거나 같이 공부하고 일을 할 때 주도적이며 적극적이다.	1	2	3	4	5
24	갈등상황에서 의견을 일치하기 위해 나의 생각을 바꿈으로서 협상한다.	1	2	3	4	5

1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친구 로그인! 절교? 로그아웃!!		
	강 사	허 정 희		
	대 상	초등 3학년 ~ 4학년		
	활동기간	8월 13일 ~ 11월 4일	총 차시	12
	장 소	석수골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8월 13일 (목요일) 16:00~ 17:30	1. 프로그램 소개 및 인사하기 2. 대인관계능력 사전검사 실시 3. ‘미스(미스터)코리아 자기소개하기 - 즐거운 수업을 위하여 직접 예시를 들어주었다. 3. ‘서약해요’ 작성하기 - 검사지를 나눠주고 솔직하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4. 힐링스토리 「친구 사귀기는 어려워」 스토리텔링 5. 힐링스토리 「친구 사귀기는 어려워」 하부르타 6. “우리, 친구하자”를 돌아가며 읽고 토의 진행 7. 나도 시인!!! 시 쓰고 발표하기 8. 수업 내용 정리하기			총 13명
자체평가	친구관계 힐링스토리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프로그램 참가 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인형을 준비하여 힐링스토리를 스토리텔링하였는데 힐링스토리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질문이 이어졌다. 힐링스토리는 각 학교에서 상황별로 수집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창작한 것이라 소개했다. 또한 힐링스토리 하부르타를 진행하였는데 질문하기에 대하여 낯설어하면서도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대인관계능력은 초등수준에 맞게 관계맺기능력, 긍정적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알아보는 검사도구이다. 중학년은 친구를 사귀고 의사소통과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은 신중하게 검사지에 체크를 하였다. 시를 소개하고 시쓰기에 들어갔는데 의외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시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친구는 관심과 배려가 그 전제가 됨을 우회적으로 전달되도록 했다. 발랄하고 솔직한 학생들과 시간가는 줄 모르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기타 의견	친구들을 관심을 갖고 성격이나 좋아하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힐링스토리, 하부르타, 시를 친근하게 대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하도록 한다.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친구란?	세션	2	시간	90분
세부 목표	○ 친구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보고 친구를 이해할 수 있다. ○ 서로 다른 두 늑대의 이야기를 통해 친구가 되는 과정을 알아본다.				
선정 자료	▶ 힐링스토리 : 「행동이 굼떠서 같이 하기 싫어요」 ▶ 도서 「큰 늑대 작은 늑대/ 나딘 브링코프/ 시공주니어/ 2011」				
준비물	힐링스토리, 회전북아트 재료, 습작노트, 하부르타 활동자료 외 활동지, 싸인펜, 색연필, 풀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30')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1차시에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친구를 사귄 때 먼저 다가가면 친구를 더 잘 사귄 수 있어요. 자, 오늘의 힐링스토리 이야기 속으로 시작해볼까요? ◎ 힐링스토리 「행동이 굼떠서 같이 하기 싫어요」 스토리텔링 - 왜 친구들은 승미와 같은 조인 것이 싫었던 건가요? - 나도 승미처럼 단점이 있어요.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같은 반에 혹시 승미 같은 친구 있나요? - 친구가 승미라면 신발주머니를 버렸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나요? - 단점이 없는 친구는 있을까요? 없을 까요? ◎ 팀별 질문지를 만들고 대답하는 질문하부르타 - 하부르타의 의미를 알려주고 질문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 승미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나는 질문을 해보게 합니다. - 그 중 의미 있는 질문을 팀별로 질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전개 (50')	◎ 각 팀별 스피드 퀴즈 - 즐거운 수업을 위하여 스피드 퀴즈를 준비하여 팀별 보상을 한다. ◎ 도서 「큰 늑대 작은 늑대」를 읽기 - 새로운 친구와 사귀기 전에 저 친구는 나보다 잘 난 거 같아서 고민한 적 있나요? - 큰 늑대가 작은 늑대에게 다가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 작은 늑대가 사라졌을 때 큰 늑대는 슬픔에 잠겼어요. 큰 늑대는 왜 먹지도 않고 운동도 못한 것일 까요? - 큰 늑대는 작은 늑대를 기다렸어요. 기다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 어떤 친구와 사귀고 싶은지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 활동지 「난 이런 친구가 좋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알아보고 친구입장에서 어떤 친구가 좋은지 살펴해보도록 합니다.				

	◎ 비밀 회전북 만들기 -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회전판에 2개의 그림(사이좋게 노는 그림, 싸우는 그림)을 그립니다. - 회전북 안에 친구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요, 내가 싫어하는 친구는요 어떤 친구인지 작성하도록 합니다. - 회전북 안에 친한 친구에게 쪽지 편지를 쓰도록 합니다. ◎ 비밀 회전북에 시쓰기 - 친구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친구란 주제로 시를 씁니다. - 시를 발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정리 (10')	◎ 힐링스토리 질문 중 의미 있는 질문 생각해보기 ◎ 하부르타와 시 수업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점 칭찬하기 ◎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하기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학교 - 친구 - 왕따】

행동이 굼떠서 같이 하기 싫어요.

승미는 4학년 여자 아이로 행동이 느리고 굼뜨다. 1학년 때부터 느리다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해 왔다. 자기주장을 잘 못하는 승미는 친구들이 놀리고 무시할 때마다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울기 일쑤이다. 오늘도 방과 후 교실에 훌쩍이며 들어오고 있는 승미를 보고 선생님께서 물으셨다.

“승미야, 왜 우니?”

“선생님, 집에 가는데 기철이가 저보고 학교주차장에서 기다리래요. 그래서 싫다고 했더니 제 신발주머니를 창문 밖으로 던졌어요.”

승미는 억울한 것처럼 이제는 큰소리를 내며 울었다.

“승미야, 울지마. 그런데 왜 기철이가 승미에게 주차장에서 기다리라고 했지?”

하지만 승미는 대답 없이 계속 울기만 했다.

조금 후 집에 가지 않은 기철이가 승미를 따라 교실로 들어오다가 선생님께 딱 걸렸다.

“기철아 왜 승미를 주차장에서 기다리라고 했니? 승미 때문에 화난 일이 있었니?”

“그냥요…….”

“사실은요, 전 승미가 싫어요. 너무 느려요. 답답해요. 그리고 수업시간에 자꾸 제 자리로 넘어와요.”

“그렇다고 친구한테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 거니? 다른 친구가 기철이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싫다고 집에 가야 하는데 신발주머니를 창문 밖으로 던지면 넌 어떻게 할 거니?”

“…….”

다음날이었다. 사회시간에 모둠별 활동을 하기 위해 선생님께서는 모둠별로 앉으라고 했다. 그런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렸다.

“우리 승미랑 하기 싫어요.”

“우리 조도 싫어요. 우리 조로 보내지 마세요.”

“승미가 우리 조로 오면 너무 느려서 우리 조가 꼴지한단 말이에요.”

다들 한마디씩 했다. 승미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울먹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승미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식사 당번하는 동하가 또 한마디를 건넨다.

“야 밥 좀 빨리 먹어. 너 때문에 당번 활동을 못해서 나가 놀지 못하잖아!”

“빨리 먹으라고!”

“거기 무슨 일이니? 왜 그렇게 시끄러워?”

선생님은 또 승미가 속상해 할까봐 모르는 척 큰 소리로 물어보았다.

“승미가 밥을 빨리 안 먹는다고 당번 애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참견쟁이 은정이가 끼어들어 고자질하듯이 선생님께 일러바쳤다. 선생님께서는 승미가 느리다는 것을 알고 제일 먼저 밥을 먹도록 배려했다.

“승미야. 제일 먼저 밥을 받지 않았니?”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먹고 있어요. 짜증나 죽겠어요.”

행동이 느린 승미 때문에 친구들은 모둠활동 외에도 무엇을 하든 승미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도대체 승미의 굼뜨는 행동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활동지 ①

큰 늑대 작은 늑대 활동지

1. “큰 늑대 작은 늑대”를 읽고 떠오르는 단어를 써보세요(생각, 느낌어)

2. “큰 늑대 작은 늑대”를 읽고 큰 늑대와 작은 늑대를 비교해보세요.

▶ 큰 늑대:

▶ 작은 늑대:

3. 친구를 사귈 때 싸운 적이 있을 겁니다. 왜 두 사람은 싸우는 걸까요?

4. 친구 사귀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풀어서 써주세요.)

활동지 ②

나는 이런 친구가 좋아!

나의 모습이 없으면 세모, 있으면 동그라미 하세요.	이름 :
	2015 년 월 일

1. 나는 친구를 배려한다.	()
2. 나는 친구를 보면 먼저 인사한다.	()
3. 실수를 하는 친구는 격려해준다.	()
4. 나는 친구의 말을 잘 듣는다.	()
5. 친구랑 싸웠을 때 먼저 화해한다.	()
6. 친구랑 마음이 안 맞을 때는 내가 양보한다.	()
7. 난 친구랑 얘기하는 것이 좋다.	()
8. 난 친구랑 없으면 외롭다.	()
9.	()
10.	()

2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친구 로그인! 절교? 로그아웃!!		
	강 사	허 정 희		
	대 상	초등 3학년~4학년		
	활동기간	8월 13일 ~ 11월 4일	총 차시	12
	장 소	석수골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8월 20일 (목요일) 16:00~ 17:30	1. 힐링스토리 「행동이 굼떠서 같이 하기 싫어요」 - 힐링스토리를 스토리텔링하고 하부르타를 진행하였다. 2. 팀별 질문지를 만들고 대답하는 질문하부르타 - 생각나는 질문을 모두 이야기 하도록 하였다. - 팀별로 질문을 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3. 각 팀별 스피드 퀴즈 4. 도서 「큰 늑대 작은 늑대」를 읽기 5. 비밀 회전복 만들기 6. 비밀 회전복에 시쓰기 7. 이번 차시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기			총 12명
자체평가	힐링스토리는 문제상황을 옮긴 이야기라 하부르타하기에 적합하다. 2차시에 질문의 수가 2개에서 4개 이상으로 늘렸는데 대부분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 수업에 임해서 기분이 좋았다. 친구들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서슴없이 표현하여 앞으로의 수업이 긍정적인 거라 예상됐다. 쓰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었다.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한 줄이라도 적도록 유도하였는데 힘들어도 잘 따라와 주어서 내심 고마웠다. 대인관계능력검사 사전검사 결과 전체적으로 두 명을 제외하고 낮은 점수가 도출되었다. 특히 세부영역의 관계 맺기, 의사소통, 문제해결 중 특히 문제해결에 점수가 조금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프로그램도 친구들의 수준에 따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학생들의 취미를 분석한 결과 우뇌성향의 직업(미술, 요리사, 화가, 만들기, 웹툰작가)이 대분이어서 깜짝 놀랐다. 활동수준이 높은 집중력이 높은 친구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게 쉽고 즐겁게 놀면서 다가가는 수업으로 방향을 수정하기로 했다.			
기타 의견	- 질문을 힘들어하는 몇 친구들은 각 모둠에서 서로서로 도와주도록 하였다. - 시 예시를 읽었으며 시쓰기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즐거움을 전달하였다. - 시쓰기 중 관찰과 리듬감을 넣어 쓸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2차시 활동 사진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나도 힘들어	차시	3	시간	90분
세부 목표	○ 어떤 말과 행동이 상처를 주는지 알아본다. ○ 이해와 관심이 왕따를 없앨 수 있음을 안다.				
선정 자료	▶ 힐링스토리 「놀리지마」 ▶ 도서 「까마귀 소년/ 야시마 타로 / 비룡소/ 1999」				
준비물	힐링스토리, 하부르타 질문활동지, 습작노트, 한지, 필기도구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30')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보았나요? 그럼 오늘도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 힐링스토리 독서팀 「놀리지마」 스토리텔링 - 은비가 놀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친구들도 은비처럼 놀림당한 적 있나요? - 왜 근빈이는 은비를 계속 놀리는 것일까요? - 만약 놀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지 얘기해 봅시다. ◎ 힐링스토리 질문하부르타 - 팀별인 아닌 개인별로 생각나는 질문을 모두 적게 합니다. - 그 질문 중에 내용이 깊고 생소한 질문을 선택합니다. - 모둠별로 질문하부르타를 진행하고 의견을 정리합니다.				
전개 (50')	◎ 도서 「까마귀 소년/ 야시마 타로 / 비룡소」 읽어주기 ◎ 까마귀 소년에 대한 토의 진행 - 친구들은 어울리지 못한 아이를 땅꼬마라고 불렀어요, 왜 땅꼬마라고 불렀나요? - 땅꼬마를 '바보, 멍충이'라고 부르는데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를 본 적 있나요? - 이소베선생님은 땅꼬마를 좋아했어요. 심지어 땅꼬마와 얘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나의 단점을 가장 먼저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 왕따 당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 너도 한 번 놀림을 받아봐!! ◎ 나도 시인!(시 쓰기) - 놀림과 상처 그리고 쓰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는 자유롭게 쓰도록 합니다.				
정리 (10')	◎ 이번 차시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기 ◎ 지금 기분이 어떠한지, 전체 분위기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야기하기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학교 - 친구 - 놀림】

놀리지마!

이 이야기는 5학년 학생 은비가 경험한 이야기야. 은비는 몸이 작고 허약해. 그리고 얇전한 편이야. 은비가 5학년 1학기 때 급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다른 남자 친구와 근빈이가 은비를 밀치면서 말을 했어.

“좀비가 밥을 먹네? 조음비?”

은비를 좀비라고 놀리는 거야. 좀비는 밥을 먹으면 안 된다면서 말이야. 이름이 조은비를 빨리 하면 좀비라고 하면서 말이야.

“너 좀비지?”

“아니라고~ 내가 왜 좀비냐? 내가 좀비면 너도 좀비잖아?”

“어라..좀비가 뭐라 그러는 거지?”

“.....”

이때까지도 은비는 참고 있었어. 워낙 자주 놀리니까 말이야. 근데 방식을 뺏어 가는 거야. 그러고는 은비의 방식을 찢고는 밟기 시작했어.

“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재밌는 거.”

그렇게 말하면서 방식을 급식 국에 넣으려고 하는 거야. 나는 깜짝 놀랐어. 그 방식은 내가 아끼는 거기 때문이야.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은비가 아무리 큰소리로 말해도 계속 놀리면서 이제는 은비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거였어. 갑자기 아파왔어.

“흑흑흑!!!”

그때 선생님이 그 광경보시고 놀라서 말씀하셨어.

“야 유근빈, 그만하지 못해! 하지 마!!”

그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셔도 근빈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 괴롭혔어. 그러더니 근빈이는 화를 못 이겨서 사물함을 뒤져서 물건을 던졌어. 은비는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교실이 떠 나가게 크게 터트렸어.

“으앙~~~”

그동안 근빈이를 비롯한 몇 명 남자친구들이 방식을 뺏어가서는 서로 돌리고 좀비라고 놀려서 울곤 했는데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야. 결국 근빈이랑 은비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담실로 가게 되었어. 그리고 잘 끝났다고 생각되었는데. 문제는 그 뒤에도 이어졌다는 거야. 2학기가 끝날 때까지 1학기 내내 계속 쫓아다니며 끈질기게 놀렸어.

“좀비? 찌질 하게 끈지르냐? 어?”. “야, 좀비? 좀비도 공부를 하냐?”

일부러 선생님 없을 때 더 놀리고 계속 때렸어. 그때마다 은비는 울었어. 우는 수밖에 없었어. 울어야 놀리는 것을 멈추니까 말이야. 은비는 정말 괴로웠어. 조은비이란 이름도 정말 싫고 이름을 지워준 엄마 아빠도 원망스러웠어. 그렇게 시간이 갔어. 그 놀림은 새 학년 6학년이 돼서야 멈췄어. 지금 은비는 그 때의 기억을 이렇게 얘기해.

“지금은 괜찮아요. 개 네들 원래 그런 애들이었어요.”



활동지 ①

나는 이런 친구가 좋아

너에게 선물을 줄게!

질문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왕따를 받는 친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만들어 주세요.
(까마귀소년에게 주고 싶은 선물도 좋아요)

이름 :

2015 년 월 일

3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친구 로그인! 절교? 로그아웃!!		
	강 사	허 정 희		
	대 상	초등 3학년~4학년		
	활동기간	8월 13일 ~ 11월 4일	총 차시	12
	장 소	석수골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8월 27일 (목요일) 16:00~ 17:30	1. 힐링스토리 「놀리지마」 스토리텔링 - 힐링이(인형)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며 친구들의 생각을 열도록 하는 방법으로 질문을 중간 중간에 넣었다. 2. 힐링스토리로 질문하부르타 3. 도서 「까마귀 소년」 토의 진행 4. 너도 한 번 놀림을 받아봐!! - 한지를 이용하여 놀림 받는 경우와 놀림을 주는 경우를 시연했다. 6. 나도 시인!! 시 쓰고 발표하기 - 솔직한 시를 많이 읽어주고 어렵고 화려하게 쓰는 시보다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시를 소개했다. 7. 마무리			총 9명
자체평가	힐링스토리 「놀리지마」를 스토리텔링하였다. 그리고 하부르타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시간이 늘기 시작했다. 단답형의 대답인 경우가 2차시까지 대부분이었으나 근거를 제시하고 경험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하부르타의 시간이 늘어나 까마귀소년은 이야기로 대신하였다. 질문을 하고 발표하는 것도 차츰 안정되어 가는 듯했다. 놀림을 당한 친구의 입장에서 서 보고는 놀림당하는 친구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제 욕을 하면 안되겠어요.' 하는 친구, '제가 친구들을 많이 놀렸는데요.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 같아요.' 라고 전하기도 하였다. 시쓰기에 낯설어 하는 친구들이었다. 유창하게 꾸며 쓰는 말보다 진솔하고 솔직하게 살아있는 글을 쓰도록 하기 위해 실제 학생들이 쓴 시를 읽어주고 사소한 것도 시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 준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짧지만 일기 쓰듯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써 내려갔다. 2차시만 해도 자신의 시를 읽어주지 못하게 했던 친구도 과감하게 시를 읽었다. 짧은 시간의 표현이 가능한 시쓰기를 통해 친구들은 마음을 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타 의견	놀림을 당하는 친구는 놀림을 주는 친구의 마음을 알고 놀림을 주도하는 친구는 놀림을 받아보며 놀림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준비하였다.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괴물이 있다고!	차시	4	시간	90분
세부 목표	○ 놀림당하고 왕따 당하는 친구를 위해 용기를 내어 도와 줄 수 있다.				
선정 자료	▶ 힐링스토리 「나도 힘들어요」 ▶ 도서 「수요일에 괴물/ 다니엘르시마르/ 개암나무」				
준비물	힐링스토리, 활동지, 습작노트, 필기도구, 카드재료,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30')	안녕하세요, 벌써 일주일이지났네요. 친구들, 혹시 일주일 동안 친구를 놀리는 것을 경험한 친구 있나요? 친구들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자 오늘의 힐링스토리 들어갑시다. ◎ 힐링스토리 「나도 힘들어요」스토리텔링 - 지웅이처럼 반에서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나요? - 한 친구로 인해 친구들도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된다면 그 친구를 어떻게 생각 할 건가요? - 지웅이는 왜 자신의 화를 못 참게 되었을까요? - 친구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 힐링스토리 질문하고 토론하기 - 질문을 많이 뽑도록 한다. - 팀별 하부르타를 진행하고 좋은 질문을 뽑아 작은 선물을 증정한다.				
전개 (50')	◎ 「수요일에 괴물」 이야기 - 말레트가 친구들은 무서운가요? - 답안지를 고치라고 줄리앙처럼 협박을 당하면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 괴롭히는 친구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혹시 그 친구를 위해 용기를 낼 수 있나요? -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 괴물카드 천사카드 만들기 - 말레트와 주변의 친구를 생각하고 괴물카드, 천사카드를 그리도록 합니다. ◎ '환상의 짝꿍' 이어주기 - 내가 아는 친구들 중 이 친구랑 이 친구는 환상의 짝꿍이 될 거 같은 친구 짝을 이어주게 합니다. ◎ 나도 시인(시쓰기) ◎ 괴물카드 천사카드 놀이진행하기				
정리 (10')	◎ 괴물카드와 천사카드 놀이 후 소감 나누기 ◎ 전체 차시 정리하고 알게 된 점 의견 나누기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학교 - 친구 - 왕따】

나도 힘들어요!!

지웅이는 6학년이다. 덩치도 학년에서 제일 크며, 힘도 제일 세다. ADHD 판정도 받았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지웅이가 ADHD 판정을 받은 것에 관해서는 고개를 가웃거린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동을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웅이는 너무나 민감한 과잉행동 반응을 보인다.

여자아이들이 뒤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소리라도 들릴라치면, 돌아서서 아이들에게 욕을 하며 폭력을 휘두르려고 한다. 이유는, 아이들이 뒤에서 자기를 욕했다는 것이다. 여자아이들이 정말로 욕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이 허다하다.

6학년 수학여행이 바로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다. 10분 간격으로 아이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시비를 걸었다. 같은 반 아이들은 수학여행이 지웅이로 인해 ‘짜증’스런 시간이 되었다며 일제히 지웅이를 비난했다.

담임선생님이나 다른 전담선생님이 그 반에 들어가서, 지웅이가 힘들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좀 참으라고 말을 하면, 아이들의 즉각적인 공격이 이어진다.

“왜 우리들에게만 자주 참으라고 해요! 우리들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선생님, 저희들도 지웅이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해요. 하지만 저희 6학년은 한 번 뿐이라고요.”

“알아, 너희들 기분, 그래도 너희가 이해주지 않으면 어쩌니.”

아이들의 불만이 오랫동안 쌓였다는 것을 알기에, 선생님들도 더 이상 뭐라 할 수도 없는 하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사건이 터졌다. 5학년 남자아이가 지웅이에게 싫은 소리를 했는데, 지웅이가 감정이 폭발되어 5학년 남자아이의 목을 조른 것이다. 상담선생님과 담임선생님께 불려가고 급기야는 어머니도 오시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웅이가 돌발행동을 보인다. 주먹으로 엄마의 뺨을 때리기 시작한 것이다. 당황한 선생님들은 지웅이의 팔을 잡았고, 잡힌 팔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걸 안 지웅이는 발로 엄마를 차기 시작했다.

“어머나, 지웅아, 지웅아~!!!”

주변에 계셨던 모든 선생님들이 지웅이를 말렸다. 모두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상담선생님은 한동안 지웅이와 상담을 하며 마음을 열도록 노력하였다. 지웅이와 한참을 얘기 끝에 지웅이는 쓰기를 선택했고 상담지에 지웅이는 다음과 같이 글을 썼다.

“아이들을 괴롭히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담임선생님은 지웅이가 없을 때 지웅이가 쓴 글을 읽어주셨다. 지웅이를 싫어했던 아이들의 눈에서 지웅이를 아프게 했던 행동들이 생각나 순식간에 교실은 침묵에 쌓였다.

“.....”

이런 지웅이를 어떻게 받아주고 이해해야 할지 선생님은 친구들의 의견을 물었다.

“선생님, 아무래도 지웅이가 싫어하는 말과 행동이 있는 거 같아요. 그것을 찾아서 마음을 건드리지 않기로 하면 어떨까요?” 그 뒤로 친구들은 노력했다. 지웅이는 요즘 웃으면서 학교에 온다. 그리고 그런 지웅이를 친구들은 반갑게 맞이해준다.

활동지 ①

나도 힘들어요.

이 름 :

질문①

질문②

질문③

질문④

지웅이에게 용기 주는 편지 !!





활동지 ②

괴물카드 천사카드

괴물카드 천사카드 만들기

내가 아는 친구들 중 나쁜 친구들 모습을
카드로 그려 봅니다.

이름 :

2015 년 월 일

--	--

카드 1

카드 2



괴물 카드를 만든 이유 ?

카드 1 :

카드 2 :

4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친구 로그인! 절교? 로그아웃!!		
	강 사	허 정 희		
	대 상	초등 3학년~4학년		
	활동기간	8월 13일 ~ 11월 4일	총 차시	12
	장 소	석수골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9월 3일 (목요일) 16:00~ 17:30	인사하기 - 습작노트에 선생님이 써 준 편지를 읽었다. - 인사하며 서약해요를 다시 한 번 읽고 수업에 임했다. 2. 힐링스토리 나도 힘들어요! 스토리텔링 3. 힐링스토리 질문하고 토론하기 - 질문을 하는 방법을 예시를 들어주고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질문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담도 팀에서 돌아가며 설명하였다. 4. 괴물카드 천사카드 만들기 5. 나도 시인! 시 쓰고 발표하기 6. 괴물카드 천사카드 놀이진행하기 7. 즐겁게 끝인사			총 9명
자체평가	힐링스토리는 왕따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 이야기로 진행했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다른 학교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들으며 나름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한 친구가 왜 하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에 대해 질문을 하여 당황하기도 했다. 친구들이 놀리는 이유들도 엇갈렸으며 논제가 도드라져 여러 의견이 오가기도 했다. ADHD도 힘의 능력을 자제하지 못해서보다는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서라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표출되었다. 토론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시간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시 쓰기에 대한 자신감도 붙어가고 있었다. 낭송하는 시들이 시답게 표현되고 있었다. 그 중 쓰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는 개인적으로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다른 친구들도 차츰 시에 대해 어려워하지 않는 듯 했다. 또한 차시가 끝날 때마다 시에 대해 화답하고 편지를 써주었는데 친구들이 무척 좋아했다. 그래서인지 친구들을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었고 라포형성이 더 빨리 진행된 거 같다. 직접 만든 카드로 팀별 놀이를 진행하였는데 같은 점수가 나와 친구들과 같이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였다.			
기타 의견	친구들이 편지를 좋아해서 친구들의 습작노트에 댓글을 정성스럽게 표현해 모두가 자신감 있게 수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4차시 활동 사진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그래 이해할게.	차시	5	시간	90분
세부 목표	○ 친구와의 다른 면을 알아보고 서로 다를 수 있음 알 수 있다. ○ 친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잘못된 편견을 버릴 수 있다.				
선정 자료	▶ 힐링스토리 「너가 뭐 잘난 줄 알아?」 「부러진 앞니」 ▶ 도서 「행복한 똥보댄서/ 조외슬랑/ 개암나무」				
준비물	힐링스토리, 습작노트, 하부르타 활동지, 친구송 활동지, 필기도구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30')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즐겁게 보냈나요? 선생님이 준 편지를 읽어보았나요? 어때요? 친구들 모습이 혹시 모두 천사카드처럼 보이지 않았나요? 자, 그럼 오늘의 힐링스토리 들어볼까요? ㉠ 힐링스토리 「너가 뭐 잘난 줄 알아?」 「부러진 앞니」 스토리텔링. - 소희처럼 인기 있는 친구들이 반에 있나요? - 인기 있는 친구랑 사귀고 싶은가요? - 인기 있는 친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인기 있는 친구를 두어서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 힐링스토리 질문하부르타 진행 - 각자 질문을 적어보고 좋은 질문 1개를 뽑게 합니다. - 두 팀 중 한 모듬의 한 팀씩 뽑아 토론을 진행합니다. - 대답은 한 명이 아닌 돌아가며 2개의 대답이 나오도록 합니다. - 베스트 질문을 뽑아 작은 선물을 줍니다.				
전개 (50')	㉢ 도서 「행복한 똥보 댄서」 이야기 및 토의 - “누가 놀리면 기죽지 말고 당당히 맞서, 마르고!” 엄마가 말씀하신거 처럼 친구들이 어려운 일에 겪게 되었을 때 용기 주는 말이 있을까요? - 남들이 간혹 누구에게든 비웃는 말을 해요. 친구들은 비웃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 나도 콤플렉스가 있어요. 이야기해봅니다. ㉣ 친구송 개사하기 - 친구란 어떤 친구가 좋은지 우유송을 가지고 친구송 개사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 나도 시인(시쓰기) !! 시쓰고 발표하기 ㉥ 친구송 댄스 콘테스트 - 개사한 친구송을 연습해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 모두 참여하여 웃으면서 즐겁게 노래 부른 팀에서 선물을 줍니다.				
정리 (10')	㉦ 힐링스토리 하부르타의 베스트 질문 뽑아 칭찬하기 ㉧ 어려워했던 친구의 시를 예를 들고 변화된 시를 읽어주고 크게 칭찬하기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학교 - 친구 - 인기】

네가 뭐 잘난 줄 알아?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 소희는 활발한 성격과 뛰어난 친화력으로 반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많은 반 아이들은 소희에게 말을 걸거나 같이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소희야, 오늘 학교 끝나고 우리 집 가서 놀자.”

“어?...어. 알았어.”

소희는 서영이가 같이 집에 가자는 말을 듣자 옆에 뚱뚱하게 앉아있는 소연이를 힐끗 쳐다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

소연이는 그런 소희를 노려보다가 반 밖으로 휙, 나가 버립니다.

소연이랑 소희는 소꿉친구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만해도 같이 놀던 둘 사이는 소희의 인기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은 소희가 하는 말투나 옷, 그리고 머리 모양까지 따라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인기 좋은 친구를 두었으니 그냥 좋았습니다.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친구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집에 가기로 했는데, 소연이는 발로 땅을 세게 쿵쿵 밟았습니다. 정말 기분이 죽을 맛입니다.

“저..저기 소연아..”

“뭐?”

뒤돌아보니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소희가 보였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리 짜증이 나는지, 소연이는 소희를 계속해서 짚어봤습니다.

“미안해. 그게~ 내 성격이 친구 부탁 거절 못하는 거 너도 알잖아.....”

“미리 나랑 같이 가기로 약속했잖아. 맨날 같이 가자는 것도 아닌데, 너 좀 심한 거 아니야? 난 너 친구 아니야?”

“그..그건 미안해. 너가 좀 봐줘.”

소희의 답답한 태도에 소연이는 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말을 꺼내려 하자 소연이는 마음에 담긴 말을 내뱉었습니다.

“네가 뭐 잘난 줄 알아?. 잘난 척하기는.”

소희는 그런 소연이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들으면 안 될 걸 들은 듯이, 소희는 고개를 꼭 숙이고 뒤돌아서 자신의 반으로 돌아갔습니다.

“칫, 완전 짜증나!!!”

소연이는 마음이 갑갑했습니다. 왜지? 속 시원해야 되는데? 소연이는 갑갑한 가슴을 억누르며 자신의 반으로 향했습니다. 소연이는 참으면 되는데 그 순간을 못 참아서 1분 만에 7년 지기 친구와 헤어지는 것 같아 너무 속상했습니다. 다음 날 소연이는 소희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소연아, 어제 잘 갔어? 오늘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소희의 말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연이는 금새 잊어버렸습니다. 활짝 미소를 지으며 소연이는 말했습니다.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나 - 건강 - 외모】

부러진 앞니

평소 친구들에게 토끼라는 별명이 붙은 승희라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토끼’는 승희의 앞니 때문에 붙은 별명인데요. 승희는 이 별명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별명 때문에 3학년이 되어서는 웃을 때 입을 가리고 웃는 버릇까지 생겼으니, 그 고민이 짐작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야~! 이번엔 너희가 잡을 차례다!”

“시간은 2분이다. 우리가 저쪽 복도로 가면 1분 지나면 바로 이름표 뜯기다!”

여자친구, 남자친구할 거 없이 준비 자세를 취했어요.

“시~~작!!!”

오늘도 점심시간에 복도에서 런닝맨 게임을 하느라 노는 곳이 복도인지 운동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덩치 큰 남학생이 자기가 먼저 가려고 다른 학생을 밀치면서 도망가다 다른 학생들과 서로 뒤엉켜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까악!”

“비켜, 비키란 말이야. 아파~~!”

그 순간 복도에서 친구와 놀던 승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승희의 입 주변은 온통 피투성이였어요. 그 모습에 아이들도 같이 놀라 소리를 지르고, 승희의 입에선 앞니 한 개가 부러져서 나왔습니다.

“어머, 어떻게? 이빨이 나왔어. 승희야, 괜찮아?”

“앙, 앙~~”

승희는 앞니가 부러진 모습에 너무 놀라서 ‘앞으로 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에 무섭기도 하면서 걱정스런 마음에 서럽게 울음이 터졌습니다.

서둘러 승희와 보건선생님은 앞니를 생리 식염수에 담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승희의 앞니는 보건선생님의 응급처치와 발 빠른 대처로 치과에서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놀이를 그렇게 심하게 노니?”

“원래 그렇게 심하게 안하는데 남자 친구들이 먼저 가려고 밀치는 바람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런닝맨 놀이를 학교에서 금지시키도록 하세요.”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교장선생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학생도 승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여 승희의 앞니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평소 창피하게 여기던 토끼 이빨이 이번 사건을 겪은 후, 승희에겐 더 이상 부끄러운 앞니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내가 토끼 이빨을 무척 싫어했잖아. 지금 생각해보니 아닌 거 같아.”

“승희야, 그렇게 생각해?”

“엄마, 이제 나 입 안 가리고 웃을래.”

엄마의 눈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위험한 일을 겪고 나서 깨닫긴 했지만, 승희의 앞니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도 토끼 이빨을 보고 승희는 말합니다.

“야, 토끼 이빨! 넌, 내 토끼이빨이야. 잘 자~!!”

활동지 ①

내가 뭐 잘난 줄 알아?

이 름:

질문①

질문에 대한 내 생각 :

질문에 대한 친구 생각 :

질문②

질문에 대한 내 생각 :

질문에 대한 친구 생각 :

질문③

질문에 대한 내 생각 :

질문에 대한 친구 생각 :



활동지 ②

친구송 개사해요

“우유송”을 이용하여 친구송을 만드어요.^^

이 름 :

2015년 월 일

콜라 싫어 싫어 홍차 싫어 싫어 새까만 커피 Oh no

핫초코 싫어 싫어 사이다 싫어 싫어 새하얀 우유 Oh yes

맛 좋고 색깔 좋고 영양도 최고 깔끔한 내 입맛엔 우유가 딱 이야!

단백질 칼슘도 왕 비타민 가득 건강한 내 입맛엔 우유가 딱 이야!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더 주세요)

우유 좋아 우유가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우유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싫어 싫어

우유가 제일 좋아 우유만 줘, milk 또 milk 영어로 밀크 Oh 우유

공부 하다 한잔 게임 하다 한잔 항상 내 곁에 Oh 우유

우유는 우유병에 먹어야 제맛, 신선한 우유만이 진짜 우유야

우유 먹고 튼튼해져 열린 자라서, 새 나라 새 일꾼이 돼 보립니다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더 주세요), 우유 좋아 우유가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더 주세요), 우유 좋아 우유가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5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친구 로그인! 절교? 로그아웃!!		
	강 사	허 정 희		
	대 상	초등 3학년 ~ 4학년		
	활동기간	8월 13일 ~ 11월 4일	총 차시	12
	장 소	석수골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9월 10일 (목요일) 16:00~ 17:30	1. 힐링스토리 「네가 뭐 잘난 줄 알아?」 「부러진 앞니」스토리텔링 - 힐링스토리 요청으로 두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였다. 2. 힐링스토리 질문하부르타 진행 3. 친구송 개사하기 - 시간이 부족하여 친구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친구란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었다. - 우유송을 들려주고 개사하였다. 4. 나도 시인(시쓰기) !! 시쓰고 발표하기 5. 친구송 댄스 콘테스트 6. 즐겁게 마무리			총 8명
자체평가	먼저 석수골도서관에 와서 기다리는 친구들과 힐링이(인형)를 찾는 아이들, 이번 차 시도 힐링스토리 인기가 좋았다. ‘네가 뭐 잘난 줄 알아?’ 한 명을 제외한 여자 친구가 대부분이어서 여자 친구 간의 질투와 샘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저는요!’가 계속 이어졌다. 이야기는 그 자체로 치유의 힘이 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아이들, 그 속에서 향이 났다. 모둠별로 친구송 개사하는 과정에서 개사하기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모두 작성하였는데 나도 모르게 뿌듯함이 전달되어 왔다. 시 쓰기는 이제 습관처럼 짧은 시간에 창작이 이루어졌다. 첫 수업부터 ‘저 시 쓰기 싫어요. 시 못써요.’ 하며 호소했던 한 친구는 짧지만 자신감 있게 ‘나 혼자 썼어요. 선생님만 보세요.’ 하며 시를 건네주었다.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시를 한 편 쓰던 친구는 다시 자리로 가서 똑딱! 2편을 쓰기도 했다. 시 발표를 꺼리는 친구도 거의 사라졌다. 친구들은 친구송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즐거워했다. 웃으면서 노래하는 미션을 주었지만 모두 거뜬히 소화했다. 수업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하자는 친구들, 이렇게 즐겁게 수업을 마쳤다.			
기타 의견	친구들은 편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칭찬했던 친구의 발표하는 모습이나 수업 태도가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문제가 있다고?	차시	6	시간	90분
세부 목표	○ 괴롭히는 친구를 찾아 해결법을 찾아본다. ○ 친구를 지해롭게 사귀는 방법을 찾아본다.				
선정 자료	▶ 힐링스토리 「좋은 말할 때 그냥 주지?」 ▶ 도서 : 「괴롭히는 친구 무찌르는 법/ 데릭 먼슨/ 정글짐북스」				
준비물	힐링스토리, 습작노트, 활동지, 손장갑, 쿠키, 딸기잼, 사과잼, 다양한 과일, 치즈,샐러드, 요구르트, 젤리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30')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친구들 우리 저번 주에 친구송을 직접 만들어 보았어요. 선생님은 지금도 웃으면서 당당하고 멋지게 노래하던 모습이 생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들어갑시다. ㉠ 힐링스토리 「좋은 말 할 때 주지?」 스토리텔링 - 언니와 오빠를 보고 무섭고 두려워 피해본 적 있나요? - 용식이를 왜 괴롭히는 걸까요? - 소중한 물건을 빼앗겼을 때 기분은 어땠을까요? - 그 형들은 잘못을 뉘우쳤을까요? ㉡ 힐링스토리 질문하고 토론하기 - 좋은 질문을 쓰고 답을 직접 쓰도록 합니다. - 짝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들어봅니다. - 나와 다른 대답에 체크를 합니다. - 좋은 질문을 뽑아 팀별 하부르타를 진행합니다.				
전개 (50')	㉢ 도서 「괴롭히는 친구 무찌르는 법」 읽기 - 제레미처럼 친구를 못되게 구는 친구가 있나요? - 아빠가 알려주신 친구를 무찌르는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 나쁜 놈 무찌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 까요? - 내가 싫어하는 친구나 나쁜 친구에게 용기 내어 다가갈 수 있나요? ㉣ 나도 시인!! 시쓰기 - 다른 학생들이 쓴 시를 읽고 시를 쓰고 발표합니다. - 시는 자유롭게 즐겁게 생각을 적게 하고 모두를 격려해줍니다. ㉤ 카나페 만들기 - 다양한 재료를 모둠별로 준비한다. - 카나페를 만든 다음 제일 싫어하는 친구와 먹을 수 있다는 다짐을 받고 시식을 하게 합니다.				
정리 (10')	㉥ 즐겁게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하고 뒷정리하기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학교 - 문제행동 - 금품갈취】

좋은 말 할 때 그냥 주지?

이제 5학년이 된 용식이는 마음이 찝찝합니다. 작년에 괴롭히던 1년 형들이 이번엔 6학년이 됐다는 게 영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어이, 용식아. 너 이리와 봐.”

“저 형, 내가 지금 학원 가야돼.”

“잔말 말고 이리와!”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6학년인 세현이는 용식을 불러 세우고 눈치를 줍니다. 세현이의 눈은 용식이 팔목에 있는 시계로 가 있습니다. 용식이는 재빨리 손목을 감추며 눈길을 피했습니다. 시계는 부모님이 얼마 전에 생일선물로 사준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어어, 가만히 있어. 응? 그거 뭐야?”

“형, 저..이건 안 되는데..없어진 거 알면 부모님 화내신단 말이야.”

“어, 가만히 안 있어?”

용식이는 이번엔 뺏기지 않으려고 몸을 뒤로 빼고 오른쪽 손목을 왼쪽 겨드랑이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누가 지나가는지 살펴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점점 자신이 없어져 고개를 푹 숙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가 세현이 형이 슬쩍 웃더니 용식이의 턱을 틀며 말을 겁니다.

“고개들어봐. 용식아.”

용식이가 고개를 살짝 들자, 그 위에는 무서운 표정을 한 세현이 형이 싱긋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그냥 주지? 맞고 줄래? 그냥 줄래?”

“형, 이건 안 돼. 내일 다른 거 가져다줄게. 응? 한 번만 봐줘. 흑흑흑”

우는 용식이의 팔을 세현이 형은 힘으로 용식이 팔목을 겨드랑이에서 빼냅니다. 힘없이 세현이 형 앞으로 나가는 자신의 팔을 울면서 멍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뺏기는 건 싫어 정말 싫어.’마음속으로 외쳐 보지만 너무 무서워 몸만 움츠러질 뿐입니다.

“형.. 제발..흑흑흑!”

세현이 형이 바둥거리는 용식이의 팔을 세게 잡고 손으로 시계를 풀려고 할 때 갑자기 과학선생님이 언제 오셨는지 세현이 형의 손을 짝 잡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뭐하는 거야!”

“으..아니 그제..”

세현이 형의 손목은 과학선생님 손에 잡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용식이는 과학선생님이 너무 반가워 울면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흑흑흑! 저 형이 제 시계를 억지로 뺏으려고 했어요. 흑흑흑!”

“용식아, 놀랐지? 괜찮아. 이제 됐으니까 진정해. 알았지?”

한 명의 형은 이때다 싶어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세현이 형은 과학선생님께 걸려서 교무실로 가야했습니다. 용식이는 1년 전부터 세현이 계속 금품갈취를 해왔다는 말을 어렵게 꺼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진 담임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활동지 ①

힐링스토리 질문하부르타

나도 알게 된 것이 있구요!!

1. 괴롭히는 친구 무찌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써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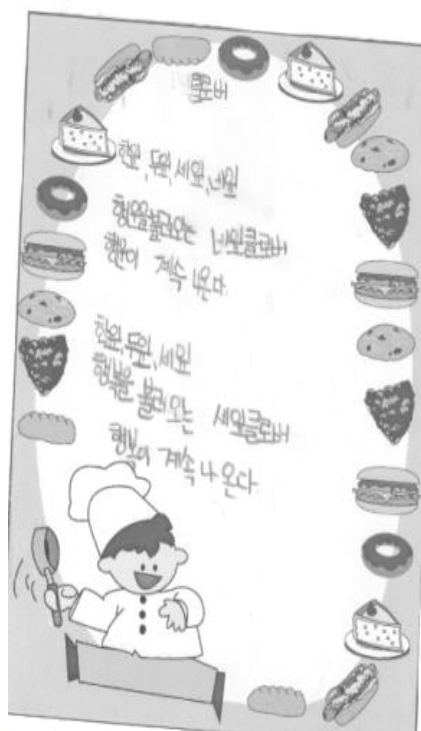
2. 제레미와 주인공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이었을까요?

3. 친구와 다툰 뒤 친구와 친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문제와 친구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적어 봅니다.

6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친구 로그인! 절교? 로그아웃!!		
	강 사	허 정 희		
	대 상	초등 3학년 ~ 6학년		
	활동기간	8월 13일 ~ 11월 4일	총 차시	12
	장 소	석수골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9월 17일 (목요일) 16:00~ 17:30	1. 힐링스토리 「좋은 말 할 때 주지?」 스토리텔링 2. 힐링스토리 질문하고 토론하기 - 개인별로 질문하고 모둠별 대답하는 과정으로 토의를 진행했다. 3. 도서 「괴롭히는 친구 무찌르는 법」 읽기 4. 나도 시인!! 시 쓰고 발표하기 - 자유롭게 생각 있는 시를 쓰고 발표하였다. 5. 친구와 먹는 카나페 만들기 - 만든 카나페 중 하나는 반드시 친구에게 주고받아서 먹도록 하였다. 6. 정리하기			총 8명
자체평가	힐링스토리와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짝토론을 권하기엔 3학년 수준이므로 질문을 하고 서로의 대답을 통해 다른 의견들을 듣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여전히 적극적으로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왜 다른 애들이 아닌 용식이만 싫어했나요? 용식이는 왜 당하고만 있나요? 용식이는 왜 용기가 없을까요? 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을까요.’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발표시간은 점점 늘어 가고 대답도 다양하게 나와 뿌듯했다. 시쓰기 시간이 이제 기다려진다고 친구들은 애기했다. 하지만 정작 기다린 건 나였다. 친구들의 창의적이 시를 보는 시간이 기다려지기까지 했다. 하루하루 시가 의미를 담아 가는 느낌이 들었다. 자신이 쓴 시를 읽어달라는 친구들, 한 친구는 2편의 시를 썼는데 그중 시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였다. ‘시를 쓰는 것은/ 참 즐거워//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마음까지/ 알려줄 수 있으니까// 시를 쓴다는 건/ 정말 정말/ 재미있는 거 같아//’ 친구와 먹는 카나페를 만들며 준비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기쁜 표정으로 정성스럽게 자신만의 카나페를 만들었다. 싫어하는 친구에게 주고 먹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카나페를 먹었다. 친구들은 어렵지만 용기 있게 같이 먹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즐겁게 수업을 마쳤다.			
기타 의견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하부르타와 시 쓰에 참여하였고 친구들 모두 안정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6차시 활동 사진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우리는 모두 달라요	차시	7	시간	90분
세부 목표	○ 남과 비교하는 이야기를 통해 친구들 모두가 다름을 알 수 있다. ○ 좋아하는 것도 꿈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봅니다.				
선정 자료	▶ 힐링스토리 : 「절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왜 시험 날 자꾸 아플까요?」 ▶ 도서 : 「순가락/ 에이미 크루즈 로젠탈/ 지경사/ 2009」				
준비물	힐링스토리, 습작노트, 활동지, 필기구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30')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보냈어요? 우리 지난주에 무엇을 만들었죠? 선생님은 친구들이 주는 카나페를 먹으며 무척 행복했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수업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힐링이가 친구들이 불러야 나온다고 하네요. 우릴 힐링이 불러줄까요? ◎ 힐링스토리 「절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스토리텔링 - 민수는 성현이를 왜 부러워했나요? - 성현이는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도 많다. 민수는 무엇을 잘할 까요? - 성현이가 엄마한테 혼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어떨까요? - 선생님은 성현이랑 비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친구가 선생님이라면 민수에게 어떻게 말해 줄 건가요? - 민수는 꿈을 찾을 수 있을까요? ◎ 힐링스토리 질문하고 토론하기 - 질문지에 질문을 작성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답을 쓰게 합니다. -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발표합니다. - 나와 생각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이유를 들어봅니다.				
전개 (50')	◎ 힐링스토리 「왜 시험 날 자꾸 아플까요」 스토리텔링 ◎ 힐링스토리 선생님과 친구의 모둠별 질문퀴즈 대항전 - 질문을 준비해 둡니다. - 선생님의 질문에 모두 답해야 합니다. 답을 못할 경우 선생님한테 지는 겁니다. - 학교 시험은 어떤 시험이 있나요? - 엄마는 시험 때 되면 잘보고 오라고 하나요? - 왜 예진이는 시험 잘 보라는 말에 불안해지는 걸까요? - 스트레스는 뭐예요? - 왜 예진이는 언니가 1등 하는 것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걸까요?				

	- 부모가 좋은 성적을 받아오길 바라는 것은 옳은 걸까요? 아닐까요? - 부모님들이 공부를 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공부를 못해도 성공할 수 있나요? 행복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어떤 시험이 중요해보이나요? - 아프면 나타나는 증세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픈 적 있어요? - 시험문제를 못 풀고 아픈 예진이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 시험을 망친 적 있나요? - 시험을 망쳤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 시험이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나요? - 시험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 장점나무 작성하기 - 친구들과 돌아가면 장점나무에 장점을 써주도록 합니다. -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점을 찾아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발표하여 봅니다. ㉡ 나도 시인!! 시 쓰고 발표하기 - 행복한 어깨동무에서 마음에 드는 시를 선택하여 크고 또박또박하게 시를 읽게 합니다. - 그리고 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자유롭게 나만의 시를 써 봅니다.	
정리 (10')	㉢ 나의 장점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 의견 나누기 ㉣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서 쓴 친구 칭찬하기 ㉤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하고 뒷정리하기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나 - 자아존중감 - 자신감】

절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1학년 2반의 담임선생님은 오늘도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를 합니다. 하나하나 읽어가며 담임선생님의 표정이 어쩔 땐 웃고, 어쩔 땐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정말 똑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단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넘기던 담임선생님의 손이 한 학생의 일기에서 멈춥니다. 어디 그 내용을 볼까요?

<민수의 일기 2013. 08.07 >

성현이는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다.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는 성현이가 난 부럽기만 하다. 성현이에 비해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친구들에게 인기도 없는 거 같고, 담임선생님도 성현이에게 칭찬만 한다. 엄마가 어젯밤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넌 왜 성현이처럼 못하니?”, “어휴, 성현이의 성적을 봐라.” “컴퓨터 안 꺼?”

물론 나도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결과는 성현이 보다 못 한지 모르겠다.

“성현이는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한다더라. 너도 좀 보고 배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그러다보니 난 성현이가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으면 괜스레 불안해지거나 화가 난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난 역시 안 되는 걸까?’ 난 성현이가 너무 너무 싫다.

.

이 일기는 요즘 예민해지고 자주 울적해지는 민수의 일기입니다. 담임선생님은 민수의 일기를 점점 더 뒤로 넘겨봅니다. 뒤로 갈수록 질투에서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담임선생님은 표정이 점점 굳어갑니다. 그리고 펜을 들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일기장 밑에 무엇을 적습니다.

‘선생님은 성현이랑 민수를 절대 비교하지 않는단다. 민수야, 너도 선생님한테 똑같은 제자야. 우리 민수는 성장하고 있는 거란다. 그러니 힘내렴.’

‘참 잘했어요.’ 꼭 눌러 도장을 찍어주면서 환한 미소를 짓는 담임선생님입니다.

다음 날, 민수는 오늘도 침울합니다. 왜냐면 또 성현이가 바른 어린이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일기를 돌려받을 시간입니다. 웬지 모르게 담임선생님이 민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일기를 돌려줍니다. 민수는 어리둥절하면서 자리에 돌아가 일기장에 항상 적히는 글씨를 봅니다. 담임선생님의 글씨를 본 민수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옆의 성현이가 민수를 보고 친근하게 말을 거네요?

“민수야! 오늘 같이 우리 집에서 떡볶이 먹을래? 우리 엄마가 제일 친한 친구 데려 오랬거든!”

“진짜? 나도 떡볶이 먹고 싶다. 아싸~”

제일 친한 친구라는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덩달아 성현이도 기뻐합니다. 성현이가 담임선생님을 쳐다봅니다. 담임선생님도 그런 민수를 보고 살며시 윈크하며 밝은 미소를 짓습니다.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학교 - 나 - 시험】

왜 시험 날 자꾸 아플까요?

“예진아, 오늘 기말고사 보는 날이지? 시험 잘보고 와”

“.....”

초등학교 6학년인 예진이는 시험 잘보고 오라는 엄마의 말에 마음이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땐 몰랐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험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시험 보는 날이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게다가 언니 화진이는 중학교 2학년인데 항상 시험을 잘 봐서 반에서 1등을 하다 보니 예진이는 언니처럼 좋은 성적을 받아오길 바라는 부모님의 기대도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까요? 5학년 기말고사 때부터 시험 보는 날이면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파서 시험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문제도 틀리고 시험성적이 전보다 더 점점 떨어졌어요.

‘아, 오늘은 제발 시험시간에 아무 일도 없기를.....’

드디어 시험시간. 잔뜩 긴장을 한 예진이는 시험지도 받기 전부터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10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뱃속이 꾸르륵 거리더니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배는 아프고 머릿속은 하얀 도화지마냥 텅 비어버리면서 문제를 제대로 읽지도 못한 채 다 찢고는 결국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난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어떡하지?”

시험을 망쳐버린 예진이는 집에 돌아와 이불에 얼굴을 뒹집어쓰고는 한참을 울었어요. 외출하고 돌아오신 엄마는 깜짝 놀라 예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예진아, 왜 울어? 무슨 일 있니?”

“엄마, 나 오늘 시험 보는데 배가 아파서 문제를 거의 못 풀었어요. 어떡해요. 흑흑”

엄마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지난번에도 시험 보는 날, 머리가 아팠는데, 오늘은 배가 아팠어?”

“네. 이상하게 시험 보는 날은 그래요. 평소엔 괜찮은데요. 정말 이상해요.”

“우리 예진이가 시험이 많이 부담스러운가 보구나.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봐.”

“아닌 거 같아요. 엄마. 병 걸린 거 아니죠?”

엄마는 갑자기 학업스트레스라는 병명이 떠올랐어요. 설마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말했어요.

“아닐 거야. 걱정 마. 그런데, 예진아 시험이란 말이 나오면 기분 좋지 않니?”

엄마의 질문에 예진이는 숨겨 놓았던 말을 했어요.

“네. 사실은 언니가 공부를 잘하니까 저도 언니처럼 좋은 성적을 맞아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자꾸 시험 날 아파서 시험을 망치니까 너무 속이 상해요.”

“.....”

침묵하던 엄마가 밝은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어요.

“그랬구나. 우리 시험은 잊어버리자. 피자 먹으러 갈까?”

“네~ 엄마, 아픈 배가 다 나은 거 같아요.”

엄마는 해맑게 대답하는 예진이를 보면서 예진이를 힘들 게 한 거 같아서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활동지 ①

절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 름:

질문①

질문에 대한 내 생각 :

질문에 대한 친구 생각 :

질문②

질문에 대한 내 생각 :

질문에 대한 친구 생각 :

질문③

질문에 대한 내 생각 :

질문에 대한 친구 생각 :





7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친구 로그인! 절교? 로그아웃!!		
	강 사	허 정 희		
	대 상	초등 3학년 ~ 4학년		
	활동기간	8월 13일 ~ 11월 4일	총 차시	12
	장 소	석수골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9월 24일 (목요일) 16:00~ 17:30	1. 힐링스토리 「절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스토리텔링 2. 힐링스토리 질문하고 토론하기 3. 힐링스토리 「왜 시험 날 자꾸 아플까요」 스토리텔링 4. 힐링스토리 선생님과 친구의 모듈별 질문퀴즈 대항전 5. 장점나무 작성하기 - 제일 마음에 드는 장점을 찾고 왜 그 장점을 골랐는지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이름을 쓰고 장점나무를 돌리며 그동안 지켜본 친구들의 장점을 적었다. 6. 나도 시인!!! 시 쓰고 발표하기 7. 즐겁게 마무리			총 9명
자체평가	힐링스토리는 초등학교에서 실제 일어난 이야기로 3분 분량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a4 한 장 분량으로 창작한 자료이다. 그래서인지 친구들의 마음을 여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숨죽이고 듣는 친구들, 중간에 이야기를 끊고 질문을 해 보기도 하지만 역시 친구들의 힐링스토리를 좋아했다. 친구들은 한결 같이 문제 상황에 처한 민수의 입장에서 열띤 질문이 이어졌다. 모두 친구들의 장점을 생각해보고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주고자 장점나무를 작성하였다. 발표를 할 때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보았는데 친구들은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표정이 관찰되었다. 자아의 성장은 친구관계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자신을 알면 친구관계도 호전되어 갈 수 있다. 이번 차시부터는 시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 보였다. 한 편의 시를 써도 되는데 두 편 이상의 시를 쓰는 친구도 늘어났다. 풀어 놓을 이야기가 많다고 즐겁게 자발적으로 시화용지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놀랐다. 시 쓰고 싶다는 아이들, 일주일 동안 쓰고 싶은 게 많아졌다는 아이들, 1,2차시에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아니었다. 다음 차시부터는 시를 평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충분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기타 의견	수업하는 동안 친구들의 표정이 밝아졌음이 관찰되었다. 편안하고 즐겁게 수업에 임하는 친구들에게 무엇을 해 줘야할지 생각하게 한 수업이었다.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꾸물대는 친구는 싫다고!!	차시	8	시간	90분
세부 목표	○ 친구와 문제가 생겨도 친구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다. ○ 시를 통해 진솔하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음을 안다.				
선정 자료	▶ 힐링스토리 : 「서둘러야 할 때 꾸물대는 아영이」, 「나도 내가 답답해」 ▶ 도서 : 「돌려 줘, 내 모자/ 우메다 순사쿠/ 시공주니어」 「행복한 어깨동무/ 정자초/ 아동문예사」				
준비물	힐링스토리, 하부르타 활동지, 습작노트, 배지 만들기 재료, 싸인펜, 필기도구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30')	◎ 힐링스토리 「서둘러야 할 때 꾸물대는 아영이」 스토리텔링하기 - 수빈이는 왜 아영이와 우쿠렐레 연습을 하려고 했을까요? - 다루는 악기나 배우고 싶은 악기 있나요? - 아영이처럼 친구가 꾸물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 수빈이와 아영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힐링스토리 질문하고 토론하기 - 개인별로 질문을 만들고 그 중 좋은 질문 한 개를 뽑게 합니다. - 모둠별로 질문에 대한 다양한 대답을 들어봅니다. - 논제가 도출되면 두 모둠의 토론을 진행하고 정리합니다.				
전개 (50')	◎ 환상의 짝꿍!! 활동지 - 모두 다른 성격의 친구들, 하지만 서로 부족한 친구에게 이 친구가 도움이 될 같은 친구가 있어요. 친구들 이름을 적고 그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를 이어주세요. 그리고 이유도 적어 봅니다. ◎ 나도 시인!! 시 쓰고 발표하기 - 똑같은 시집 '행복한 어깨동무' 10권을 준비하여 나눠줍니다. -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시를 고릅니다. - 발표하고 싶은 시를 낭송합니다. - 시 낭송을 잘한 친구를 객관적으로 학생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 시낭송 잘 한 친구에게 작은 선물을 증정합니다. - 시를 쓰고 친구들 앞에서 낭송합니다. ◎ 친구 핀버튼(배지) 만들기 - 나와 다르지만 좋아하는 친구에게 줄 선물로 배지 만들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 가족을 위한 선물로 배지를 만들어 봅니다. - 배지를 소개하고 즐겁게 수업을 마무리 합니다.				
정리 (10')	◎ 오늘 수업 시 기억에 남는 활동 생각해 보기 ◎ 친구들 만나서 행복하다 전하고 다음차시 안내하기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나 - 정서 - 화】

서둘러야 할 때 꾸물대는 친구 아영이!

수빈이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성격이 완벽한 것도 있지만 자신이 계획한 것을 하는 것이 잘 사는 거라 생각하고 지내거든요.

오늘은 음악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악기를 가지고 와서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이날을 위해서 수빈이는 몇 달 전부터 우쿨렐레 방과 후 수업을 듣고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우리 수빈이 완전 잘한다. 역시 엄마 딸이야.”

“정말? 정말???”

수빈이는 엄마가 칭찬을 해주셔서인지 쉬운 노래는 몇 곡 혼자서 노래 부르며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수빈이 단짝 친구 아영이도 우쿨렐레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데 소질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영이가 좀 굼뜨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래를 잘 부르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둘이 연습하기로 했어요.

“아영아, 너 잘한다. 우리 같이 발표하면 애들이 깜짝 놀랄 거야.”

“그치? 수빈아, 우리 잘해서 깜짝 놀래주자~”

어제는 친구 아영이네 집에 가서 우쿨렐레 연습을 같이 했어요. 정말 환상의 콤비였어요. 오늘 아영이랑 같이 발표하기로 한 날이에요. 수빈이는 아침 일찍 우쿨렐레를 들고, 아영이와 같이 등교하려고 아영이네 집으로 갔어요.

“어? 수빈아, 벌써왔어? 기다려. 빨리 할게.”

“알았어. 빨리해. 늦겠다.”

아영이는 머리를 감고 말리고 있었어요. 수빈이가 아영이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으니 아영이 엄마가 잠깐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하는 수 없이 수빈이는 아영이 집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아영이가 학교 갈 준비 다 하는 동안 수빈이는 거실 소파에 있는 동화책을 읽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영이가 서둘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겨우 아영이가 등교준비를 마쳤을 때는 우리가 지각할 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수빈이가 말했어요.

“아영아, 늦었어. 제발 빨리해.”

“아, 다 했더니까. 잠시만.”

수빈이는 너무 답답했어요. 아영이가 느리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굼똥 줄 상상도 못했어요.

“수빈아, 가자.”

“너 때문에 늦었잖아. 빨리 뛰어. 아 짜증나.”

다행히 다행히도 지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교시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아영이도 나도 늦어서 급하게 오는 바람에 우쿨렐레를 아영이 집에 두고 학교에 온 것이었어요.

2교시 음악시간 시작종이 울렸어요. 화를 낸 적이 없는 수빈이는 갑자기 화가 났어요. 우쿨렐레를 놓고 온 게 모두 아영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자 아영이가 싫어졌어요.

‘아영이만 꾸물대지 않았어도 이런 상황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수빈이는 2교시가 끝나는 동안 참고 있다가 말했어요.

“야, 이아영, 너랑 절교야. 그러니까 앞으로 말 걸지 마.”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나 - 정서 - 수줍음】

나도 내가 답답해!

오늘은 국어 읽기 시간이 들었다. 나는 읽기시간이 싫다. 특히 선생님께서 책을 읽어보라고 시키시면 정말정말 숨이 턱 막힐 지경이다. 일어나서 책을 읽는 순간 아이들의 킥 킥 소리에 내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지고 가슴이 방망이질치고 숨이 가빠온다. 정말 두려운 하루가 될 것 같다. 정말 학교에 가기가 진짜 싫다.

드디어 읽기시간이 돌아왔다. 나는 종이 치자마자 가슴이 오그라들었다. 그리고 시킬까봐 고개를 꼭 숙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미리야! 교과서 47쪽 두 번째 단락 좀 읽어 보겠니?”

“네에.” 나는 모기만한 소리로 대답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나는 그렇다고 선생님의 말을 거역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읽어 내려갔다.

“어머니..께서는 두.. 손을 짹지(꼭지)... 긴 채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여기저기서 내가 읽는 것을 듣고 수군수군 거렸고 몇 몇 애들은 킥 킥 웃으며 배꼽을 잡았다. 기분이 안 좋다.

“히히히 목소리 좀 봐~~ 들리지가 않아!!” 옆 짝꿍 민지가 말했다.

“왜 또 저렇게 천천히 읽냐?? 글씨 제대로 모르는 거 아냐?” 은희도 말했다.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읽고 싶어도 읽은 것도 아니다. 정말 난 바보 같다. 그것을 본 선생님께서 한 마디 하셨다.

“모두들 조용히 하세요!! 미리야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빨리 읽어 주겠니?”

“네에.....”

“어머니께서는..... 사라...보다.... 먼저... 버스에서~~~~”

“선생님!! 안 들려요~ 다른 친구가 읽으면 안돼요?”

민지, 은희, 수민, 보라, 수경, 그리고 남자애들까지 큰소리로 말했다.

“바꿔요~~바꿔요~~”

“글쎄~~ 친구들이 조금 더 조용히 하고 웃지 않고 잘 들어주면 미리도 더 잘 읽을 수 있지 않을까??”

“.....”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만 난 정말 싫다. 내가 싫기도 하고 창피하고 두렵다.

“그래. 그럼, 미리는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고 내일은 좀 더 큰 목소리로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하도록 하자~ 나머지 부분은 민지가 읽어보도록 하세요.”

민지는 책을 거침없이 읽어 내려갔다. 또박또박, 발음도 정확하게 읽는 민지를 보며 나는 부끄러웠다. 이상하게 애들한테 읽기가 이상하다는 말을 들을 때부터 읽기가 점점 어렵다. 집에서는 또박또박 잘 읽어지는데 수업만 하면 왜 그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른다. 점점 읽기시간만 되면 수업이 두려워진다.

‘그래도 오늘은 겨우겨우 넘겼다. 그런데 내일 또 시키시면 어찌지?’ 생각하면 할수록 두려워진다. 오늘 집에 가면 엄마한테 고민을 얘기해야겠다. 엄마가 걱정을 하시겠지만 이제는 해야겠다.

활동지 ①

환상의 짝꿍

내가 아는 친구들 중 이 친구랑 이 친구는
환상의 짝꿍이 될 거 같아요.

이름 :

2015 년 월 일

1. () ()

이유 : _____

2. () ()

이유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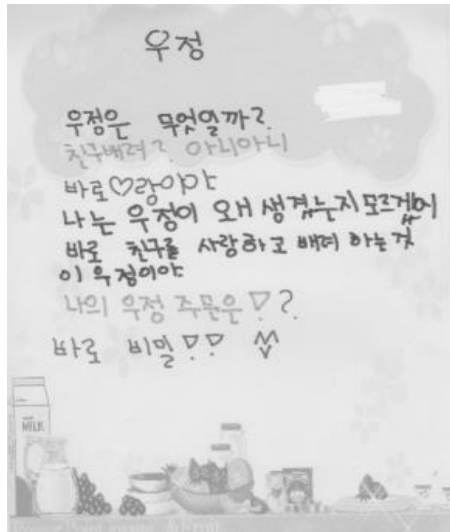
3. () ()

이유 : _____

8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친구 로그인! 절교? 로그아웃!!		
	강 사	허 정 희		
	대 상	초등 3학년 ~ 4학년		
	활동기간	8월 13일 ~ 11월 4일	총 차시	12
	장 소	석수골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10월 1일 (목요일) 16:00~ 17:30	- 힐링스토리 「서둘러야 할 때 꾸물대는 아영이」 스토리텔링하기 - 힐링스토리 질문하고 토론하기 - 논제를 찾아 모둠 별 토론을 진행했다. - 환상의 짝궁!! 활동지 - 내 가까이 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쓰고 그 친구가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친구를 적었다. - 나도 시인!!! 시 쓰고 발표하기 - 좋아하는 시를 선택하여 시낭송대회를 열었다. - 친구 핀버튼(배지) 만들기 - 친구에게 주는 선물로 배지를 정성껏 만들었다. - 즐겁게 마무리			총 9명
자체평가	친구들은 오자마자 인사하고 습작노트에 써 놓은 댓글 먼저 보고 즐거워했다. 힐링스토리 「서둘러야 할 때 꾸물대는 아영이」의 질문에는 ‘수빈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완벽주의자였을까?, 수빈이는 자기가 아영이네 집에 우쿨렐레를 두고 오고서 왜 아영이에게 화를 낸 것일까? 아영이는 행동이 옛날부터 느렸을까요?’ 등 여러 질문들이 도출되었다. 누구의 실수인가라는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아영이를 원망하는 수빈이의 실수가 크다는 의견으로 정리되었다. 시낭송을 진행한 이유는 시를 읽음으로써 리듬감을 살리고 읽어 내려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발음과 감정이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 쓰기에도 도움이 된다. 솔직하고 진솔한 시에 감정이 실린 다면 친구들의 쓰고자 하는 시는 자연스럽게 나아질 것이다. 친구들은 시낭송에 최선을 다해 임했으며 친구들이 점수를 주어서 기쁘게 시낭송에 큰 점수를 얻어 선물 받은 친구에게 큰 박수를 쳐주었다. 또한 시도 진지하고 신중하게 적어 내려갔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가족 혹은 친구에게 선물주기 위해 핀버튼(배지)을 만들어 가는 친구들, 모두 웃으며 수업을 마쳤다.			
기타 의견	핀버튼(배지)만들기 시간이 부족하여 석수골작은도서관 사서선생님이 도움을 주셨는데 너무 고맙다.			

7, 8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용기 낼 수 있어.	차시	9	시간	90분
세부 목표	○ 친구에게 용기 내어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다. ○ 풀기 어려운 말이라도 나를 이해해 주는 친구를 만들어 본다.				
선정 자료	▶ 힐링스토리 : 「텔레비전 이제 금지야」, 「핸드폰 달란 말이야」 ▶ 도서 : 「겁쟁이 빌리/ 앤서니 브라운/ 비룡소」				
준비물	힐링스토리, 습작노트, 하부르타활동지, 퍼니콘, 아이클레이, 물티슈, 밀판, 필기도구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30')	◎ 힐링스토리 「텔레비전 이제 금지야」 스토리텔링 - 민정이는 영어학원 갔다가 왜 빨리 집에 와서 숙제를 하고 텔레비전 앞으로 간 걸까요? - 좋아하는 프로그램 어떤 것이 있나요? - 엄마가 화를 낸 이유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 민정이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 민정이는 프로그램을 보고 마음이 풀렸을까요? - 친구들은 무엇을 할 때 민정이처럼 행복하나요? ◎ 힐링스토리 「텔레비전 이제 금지야」 하부르타 - 질문지에 질문을 쓰고 짝에게 질문을 합니다. - 친구와 의견이 다른 질문에 체크합니다. - 의견이 다른 질문으로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전개 (50')	◎ 도서 「겁쟁이 빌리」 읽기 - 빌리는 어떤 아이였나요? - 친구들에게도 걱정이 있나요? -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걱정하고 상상한 적 있나요? - 할머니가 인형을 주었는데 무슨 인형을 주었나요? - 걱정인형처럼 비밀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 빌리는 걱정이 사라졌을까요? - 걱정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나도 시인!!! 시 쓰고 발표하기 ◎ 퍼니콘으로 나만의 친구 만들기 - 퍼니콘을 이용하여 나만의 친구를 만들어 봅니다. - 동물과 사람, 그리고 내가 아끼는 물건도 가능합니다. - 친구들에게 소개합니다.				
정리 (10')	◎ 힐링스토리하부르타에 대해 의견나누기 ◎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하고 뒷정리하기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나 - 습관 - 텔레비전】

텔레비전 이제 금지야!

오늘은 민정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운명처럼 널 사랑해’가 나오는 날입니다. 한껏 기대한 민정이는 영어학원에 갔다가 집에서 돌아오자마자 숙제를 하고 재빨리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갑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민정이, 하지만 씻지도 않고 멍하니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민정이를 보고 어머니는 한 말씀 하십니다.

“민정아, 좀 씻고 보기라도 해라.”

“아이, 좀 있으면 시작한다 말이야!”

민정 어머니는 시계를 살짝 쳐다봅니다. 드라마가 나오려면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다시 한 번 민정에게 말합니다.

“민정아, 아직 시간 남았잖니.”

“괜찮아, 나 깨끗해. 별로 많이 안 남았어! 그리고 이제 곧 시작한다 말이야. 엄마 맨날 드라마 보면서 나만 갖고 그래.”

민정 어머니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중간고사 성적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텔레비전만 본다고 큰소리만 뽐뽐치는 민정을 보자 부글부글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야! 김민정! 좋은 말 할 때, 엄마 말 들어!”

“오늘 따라 왜 그래?! 곧 있으면 시작한다니까?!”

민정은 오늘따라 이상한 엄마의 태도에 어이없어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오래보지 말라고 만하고 들어갔는데, 기분 나쁜 민정이는 자기도 모르게 화를 냅니다.

“야, 김민정!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너, 이제부터 텔레비전 못 보니까 알아서 해!”

“뭐? 왜 또 그래? 왜 맨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못하게 하는데?”

민정은 투덜투덜 거리며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습니다. 민정이는 얼굴을 찡그리더니 잔뜩 짜증난 표정으로 화가 나서 말합니다.

“아니, 엄마, 왜 갑자기 그러는데?”

“갑자기? 네가 오늘 한 행동이 맞는 행동이라 생각하니? 엄마 말보다 텔레비전을 더 좋아하는 거 같아서 화가 나서 그런다. 왜?”

“하, 정말 기가 막혀서. 엄마, 내가 기계야? 그동안 공부하고 와서 머리아파 죽겠는데 엄마까지. 진짜 왜 그래?”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찌직!!!!

민정이 어머니가 드디어 텔레비전 전원을 꺼버립니다. 전원이 꺼진 텔레비전을 멍하게 바라보다 민정이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래? 텔레비전 켜 줘 ~~”

“씻고 오면 쳐줄게. 아무리 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손발은 씻고 봐야지. 학원 다녀와서 손도 발도 지금 안 씻고 있잖아. 유치원으로 다시 보낼 수도 없고, 참!!”

“알았어, 알았다니까~~” 민정이는 씩씩되면서 화장실로 뛰어갑니다. 대충 씻고 3초 만에 들어오는 민정이를 보며 민정 어머니는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나 - 습관 - 정보통신(스마트폰 · 카톡)】

핸드폰 달란 말이에요!!!

6학년 은정이는 휴대전화를 마음껏 사용하고 싶어요. 휴대전화만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기분이 아주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빠가 싫어합니다. 그러나 은정이는 혼나고 혼나도 휴대전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휴대전화 속에 은정이가 하고 싶은 것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와 자주 다투는 일이 늘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말도 없이 휴대전화를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깔아 지정된 시간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은정이는 어쩔 수 없이 약속했습니다.

“은정아 휴대전화는 앞으로 오전 7시부터 8시 오후 3시부터 5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만 사용하는 거다.”

“아빠, 꼭 이렇게 해야 해요?”

“이렇게 정해 놓지 않으면 지키기가 힘들어. 알겠지?”

“이건 아빠가 정한 거잖아? 나는 뭔데?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어. 꼭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이번에도 지키지 않으면 아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지켜”

“치. 알았어.”

사용시간이 길게 보이지만 은정이의 일상 중 사용하려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침에는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하고 오후에는 학원에 가야 하고 저녁에 숙제하고 나면 정작 휴대전화를 할 시간은 저녁 시간 한두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은정이가 잘못하는 일이 생기면 사용시간은 더 줄어들어 아빠에 대한 불만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아빠는

“너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휴대전화 내놔! 앞으로 저녁 시간 사용시간을 한 시간으로 줄일 거야.”

“아빠, 나 휴대전화 하는 시간 얼마 안 된단 말이야. 학원에 가야 하고 숙제도 해야 하고 진짜 휴대전화 할 시간도 없단 말이야!”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아빠, 진짜 미워!”

“은정아.”

“엄마도 똑같아. 내 마음 이해해준다고 하고선, 엄마도 미워, 밉단 말이야.”

“은정아, 너 버릇없이 굴래?”

“아빠, 휴대전화 달란 말이에요. 휴대전화 달란 말이야!!!” 은정이는 드디어 소리를 고래 고래 지르며 울고 맙니다. 그런 은정이를 보고 부모님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휴대전화로 친구들과 대화도 해야 하고 사진도 올리고 친구들의 사진도 확인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한 데 아빠는 내 맘을 너무 몰라줍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9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친구 로그인! 절교? 로그아웃!!		
	강 사	허 정 희		
	대 상	초등 3학년 ~ 4학년		
	활동기간	8월 13일 ~ 11월 4일	총 차시	12
	장 소	석수골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10월 8일 (목요일) 16:00~ 17:30	1. 힐링스토리 「텔레비전 이제 금지야」 스토리텔링 2. 힐링스토리 「텔레비전 이제 금지야」 하부르타 3. 나도 시인!!! 시 쓰고 발표하기 4. 힐링스토리 「핸드폰 달란 말이야!」 들려주기 5. 퍼니콘으로 나만의 친구 만들기 6. 즐겁게 마무리			총 8명
자체평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친구들의 이야기가 오갔다. 비밀이야기는 서로 서로 지켜주기로 하고 고민을 서로 해결해주는 친구들, 이번 차시에도 매주 하부르타를 하여 실증 날만 도 한데 서슴없이 질문에 많은 의견들이 오갔다. ‘왜 하필 엄마는 그때 손을 씻으라 했을까?, 할 것도 다했는데 엄마는 왜 텔레비전을 꺾을까?, 누가 먼저 사과했을까?, 왜 텔레비전을 좋아하는지’ 등의 질문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다. 이번 차시는 시 창작에 집중했다. 시를 쓴 편수들을 모아보니 벌써 80편이 다 되어 가고 있었다. 친구와 자유주제로 써 내려간 시를 정리하다가 시를 읽으며 친구들은 ‘시인이 되고 있구나’ 여겨졌기 때문이다. 시를 좋아하는 친구들, 겁 없이 용기 있게 쓴 시를 친구들에게 다시 한 번 읽어주고 격려했다. 한 친구의 ‘바보’라는 시이다. “바보도 여러 가지가 있다. // 천재 같은 똥땡이/ 정말 바보 같은 말라깽이/ 멍청이 같은 꼬맹이/ 공부 잘하는 키다리 그림 잘 그리는 날씬이//“ 주위의 친구를 비유하여 쓴 시다. 모두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시가 놀라보게 항상 되었다. 처음에는 전혀 기대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친구들은 친구관계를 시로 잘 표현하고 있었다. 소중한 작품이 되어 있었다.			
기타 의견	파리와 벌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빛이 통로라 여긴 벌은 결국 병속에서 나올 수 없었으나 파리는 여기 저기 부딪치다 병에서 나왔다는 내용이다. 모두들 공감을 하였고 틀려도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표현하였다.			

9차시 활동 사진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들리니? 내 마음이?	차시	10	시간	90분
세부 목표	○ 친구의 성격을 알고 이해할 수 있다. ○ 성격이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선정 자료	▶ 힐링스토리 : 「아무생각도 들지 않아」 ▶ 도서 : 「너무 부끄러워/ 크리스틴 나우만 빌맹/ 비룡소/ 2012」				
준비물	힐링스토리, 습작노트, 성격도움자료, 우리말 도움자료, 하부르타 활동지, 필기도구, 시집 10권,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30')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친구들과 재미있게 보냈나요? ◎ 힐링스토리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 스토리텔링 - 왜 건아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은 걸까요? - 건아 엄마처럼 친구의 엄마도 잔소리 하나요? -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힐링스토리 질문하부르타 - 좋은 질문을 4개 적게 합니다. - 좋은 질문 1개를 선택하고 질문을 통해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전개 (50')	◎ 도서 「너무 부끄러워」 읽기 - 레아는 어떤 성격을 가졌나요? - 부끄러워하는 친구들 본 적 있나요? - 부끄러워하는 아이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친구에게 새치기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레아가 비올레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나는 명탐정!! 활동지 - 친구들을 관찰하고 친구의 성격을 맞춰봅니다. - 여러 가지 성격에 대해 자료를 나눠주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 이 세상엔 나쁜 성격만 가진 사람은 없으며 맘에 들지 않아도 장점이 되는 성격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 나도 시인!! 시 쓰고 발표하기 - 순수 우리말 자료를 나눠주고 고유어를 설명합니다. - 팀별 게임을 통해 고유어 퀴즈를 진행합니다. ◎ 나도 시인!! 시 쓰고 발표하기 ◎ 이구동성 우리말!!! 게임				
정리 (10')	◎ 우리말에 대한 의견 나누기 ◎ 하부르타와 창작한 시에 대해 칭찬하고 다음 차시 안내하기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나 - 성격 - 나태한 성격】

아무생각도 들지 않아!

한가로운 주말 아침,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 건아는 멍하니 누워있습니다. 웬지 모든 게 하기 싫고 귀찮아 집니다. 심지어는 일어나기도 말이지요. 지금 시간도 알아보기도 귀찮고 내 일은 뭐할까 생각도 하기도 귀찮습니다. 친구랑 노는 시간? 움직이기도 귀찮은데 무슨.

“으으……, 과자 먹고 싶다.”

먹고 싶은 과자 생각이 나서 몸을 일으키려던 건아는 다시 몸져눕습니다. 역시나 귀찮아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빗방울이 몇 방울 내리더니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웬지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빗소리를 듣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이 서늘해질 즈음, 엄마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건아야! 너 운동화 다 젖는다!”

건아는 재빨리 일어나 배란다 문을 열고 앞에 널어져있는 운동화를 재빨리 들어웁니다. 아니 나 다를까 축축합니다. 내일 학교에 갈 때 신을 신발인데. 엄마는 따끔한 잔소리를 합니다.

“애가 왜 생각이 없어 생각이! 내가 알아서 말려!”

건아는 운동화를 닦을까 말까 참으로 오랜만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역시 귀찮음에 건아는 그냥 수건 위에 운동화를 올려놓고 다시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빗소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듣다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천둥소리보다 더 우렁찬 폭탄소리가 아파트 앞에서 울립니다. 집에 혼나 누워 있던 건아는 엄마랑 약속했던 것을 기억해 냅니다.

“건아야, 전쟁이 나면, 엄마도 아빠도 회사가고 조금 기다리다 나타나지 않으면 힐링초등학교에서 만나는 거야. 알았지? 꼭 편지는 써 놓고 가야돼. 알았지?”

건아는 갑자기 일어난 전쟁에 놀라 무거운 몸을 눈 깜짝할 사이에 일으켜 허둥지둥 펜을 찾습니다. 폭탄 소리에 전기도 나가버립니다.

“엄마, 엄마 언제 와??”

핸드폰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건아는 정신을 차리고 종이에다 편지를 남기고 어두운 집을 떠나 힐링초등학교로 달려갑니다. 미쳐 신발도 신지 못하고 피 묻힌 발로 달려갑니다. 뒤에서 팽!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집이 날아갔습니다. 엉엉 울면서 힐링초등학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종이에다 가족을 찾아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처참하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건아는 재빨리 종이를 구해 엄마, 아빠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소리치며 학교를 뛰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아줌마도 보이는데 아무리 불러도 엄마 아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아를 찾아 혹시 아파트로 들어가서 돌아가신 게 아닐까 싶어 더욱 땀뿜만한 눈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힘 다해 외쳐봅니다.

“엄마, 건아 여기 있어요. 아빠, 건아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엄마~~~~”

“아니, 애가! 건아야. 그 사이에 또 잠을 자? 아니 신발이 이게 뭐야?”

잠에 깬 건아는 엄마의 잔소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엄마, 엄마, 가만 나뉘요. 내가 할게요.” 갑자기 재빠르게 움직이는 건아를 보고 엄마는 의아해합니다. 그런 엄마를 보고 건아는 말을 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활동지 ①

나는 명탐정 ~ !!!

친구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성격을 맞춰보세요.		이름 :
		2015 년 월 일
친구 이름	친구의 정보	친구의 성격은?

10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친구 로그인! 절교? 로그아웃!!		
	강 사	허 정 희		
	대 상	초등 3학년 ~ 4학년		
	활동기간	8월 13일 ~ 11월 4일	총 차시	12
	장 소	석수골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10월 22일 (목요일) 16:00~ 17:30	1. 힐링스토리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 스토리텔링 2. 힐링스토리 질문하부르타 3. 도서 「너무 부끄러워」 읽기 4. 나는 명탐정!! 활동지 5. 나도 시인!!! 시 쓰고 발표하기 - 순수 고유어를 알려주고 퀴즈를 진행하였다. 6. 이구동성 우리말!!! 게임 - 순수 고유어로 이구동성 게임을 하였다. 7. 즐겁게 마무리			총 9명
자체평가	10차시 수업은 친구의 성격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힐링스토리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은 뭐든 귀찮아하는 성격의 건아에게 벌어지는 꿈 이야기이다. 결국 건아는 온전한 아이로 되돌아온다. 친구들은 ‘꿈에서 왜 하필 전쟁이 났을까? 건아는 매일 엄마랑 싸울까요?’ 외에도 여러 질문들이 오갔다. 중학년은 짝과의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모든 친구들이 질문과 대답에 참여해서 모두가 적극적 수업에 참여하였다. 9차시 동안 활동한 친구들이 성격을 알아보았다. 자신이 생각했던 성격과 친구들이 생각했던 성격이 다른 친구도 있었다. 시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순수고유어를 이용하여 시 쓰기 작업에 들어갔다. 시 2편을 소개한다. 시 제목은 ‘낫살’이다. 겨울엔 / 울 엄마/ 낫살 한 개 또 늘어나// 한 겨울엔/ 울 엄마/ 낫살 두 개 또 늘어나// 그럼 봄에는? / 울 엄마 / 낫 살 세 개/ 없어져 버려.// 시 제목 ‘뺏데리’이다. 친구관계는/ 뺏데리야.// 충전기가 없으면/ 꺼지지// 보조자가 없으면/ 힘이 나가지// 친구도 똑같아/ 친구가 없으면 힘이 안나거든//			
기타 의견	친구들은 모두 성격이 다르며 성격이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우리는 베프!!	차시	11	시간	90분
세부 목표	○ 서로 배려하고 나눈다면 진정한 우정을 키울 수 있다.				
선정 자료	▶ 힐링스토리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어려워요」 ▶ 도서 「길아저씨 손 아저씨/ 권정생/ 길벗어린이」 「똑똑 마음을 두드려봐/이정신/ 해와달 (26. 어울려살기)」				
준비물	힐링스토리, 습작노트, 하부르타활동지, 과자, 안대, 필기도구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30')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 힐링스토리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어려워요」 스토리텔링 - 지빈에게 승민이가 말실수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친한 친구랑 놀다보면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친구들도 나도 모르게 마음과 달리 이야기를 한 적 있나요? - 승민이와 지빈이는 또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 친구와 싸우고 화해하고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먼저 화해를 하나요? ◎ 힐링스토리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어려워요」 하부르타 - 질문을 뽑고 팀별 토론을 진행합니다.				
전개 (50')	◎ 도서 「길아저씨 손 아저씨」 돌아가면 읽고 토의를 진행한다. - 가슴이 아프고 불쌍한 감정이 든다면 왜일까요? - 길아저씨와 손아저씨처럼 부족함을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는 친구가 있나요? -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만나고 싶은 친구를 생각해보고 그 친구가 왜 생각이 났는지 이야기 해봅니다. ◎ 나도 시인!! 시쓰고 발표하기 ◎ 대인관계능력 사후검사 실시 - 1차시처럼 솔직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 우리는 베프(Best Friend) - 한 명은 눈을 감고 한명은 주어진 미션에 길 안내를 하며 과자를 따먹고 미션을 수행해서 돌아옵니다. - 서로 부족한 것은 서로 도와주고 나눔으로써 행복함을 전합니다.				
정리 (10')	◎ 이번 차시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기 ◎ 마지막 다음 차시 안내하기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학교 - 친구 - 우정】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어려워요

1학년인 승민이와 지빈이는 같은 반 친구다. 방과 후엔 도서관에 와서 같이 책도 보고 사이좋게 지낸다. 그런데 어느 날, 방과 후에 승민이가 도서관에 오더니 사서선생님을 보고 지빈이를 찾았다.

“선생님~ 지빈이 왔어요?”

사서선생님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승민이를 보고 말했다.

“아니, 아직 안 왔는데, 무슨 일 있니?”

평소와 다르게 당황한 표정인 역력한 승민이가 울먹이면서 사서선생님에게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었다.

점심시간, 승민이는 남자친구들과 즐거운 식사를 끝내고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멀리서 지빈이가 여자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사탕을 먹는 게 보였다. 승민이는 지빈이를 놀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남자친구들을 내버려 두고 지빈이에게 달려갔다.

“지빈아, 그거 알아?”

“으응? 뭘?”

지빈이는 사탕을 입안으로 하나 더 넣었다. 그것을 보고 승민이는 짓궂은 말투로 말했다.

“사탕 많이 먹으면 똥똥해진데!”

그러자 지빈이는 움직임을 멈췄다. 그리고 울먹거리며 승민이를 보고 소리쳤다.

“안 똥똥해지거든! 나 안 똥똥하거든!”

“.....아니 난 그런 말 한적 없는데.”

심각하게 이야기가 흘러가자 승민이는 지빈이에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때였 다. 점심시간에 같이 있던 남자친구들이 와서 지빈이를 보고 놀려댔다.

“지빈이는 돼지래요~ 돼지래요~”

“아! 너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빈이가 끝내 울음을 터트리자 남자아이들은 승민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승민이는 이것이 아닌데 하고 생각했지만 얼떨결에 그냥 끌려 가고 말았다. 그 뒤론 지빈이는 승민이를 보면 피한다.

사태가 심각한 것을 안 선생님은 지빈이 엄마한테 연락을 했다.

“선생님, 승민이 댁에는 그냥 장난 한 것이 거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지빈이가 승민이 말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똥똥하다는 말에 지빈이가 상처받거든요. 더군다나 친구 승민이가 그러니 너무 속상했다고 하네요.”

“어머니, 지금 승민이가 무척 반성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불편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뒤로 지빈이 엄마와 한동안을 이야기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지빈이 엄마는 승민이와 지빈이를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왠지 사이가 나빠진 것 같다고 걱정했다. 그 후로 승민이랑 지빈이를 도서관에서 같이 있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앞으로 둘은 영영 친구가 될 수 없는 걸까.

활동지 ①

이름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어려워요	이름	
질문①		
질문②		
질문③		
질문④		
질문⑤		
질문⑥		
질문⑦		



나는 이것은 양보할 수 있어요.^^

1. 나는 -----
2. 나는 -----
3. 나는 -----



11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친구 로그인! 절교? 로그아웃!!		
	강 사	허 정 희		
	대 상	초등 3학년 ~ 4학년		
	활동기간	8월 13일 ~ 11월 4일	총 차시	12
	장 소	석수골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10월 29일 (목요일) 16:00~ 17:30	1. 수업인사 2. 힐링스토리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어려워요」 스토리텔링 3. 힐링스토리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어려워요」 하부르타 4. 도서 「길아저씨 손 아저씨」 들려주기 5. 나도 시인!!! 시 쓰고 발표하기 6. 대인관계능력 사후검사 실시 - 1차시처럼 솔직하게 체크하도록 하였다. 7. 우리는 베프(Best Friend) -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배려와 나눔을 생각해보게 하고 친구에게 의지하여 과자를 따먹고 돌아왔다. 8. 즐겁게 마무리			총 8명
자체평가	힐링스토리 마지막 이야기이다.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어려워요」를 스토리텔링 후 하부르타를 진행하였다. ‘승민이는 지민이를 감싸주지 않고 먼저 놀린 것일까요?, 지민이와 승민이의 친구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승민이와 지민이의 문제인데 왜 둘이 해결을 하지 않을 걸까요? 승민이는 왜 사과를 하지 않은 건가요?’ 등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내용의 핵심을 짚어 낼 수 있는 알찬 질문들이 나왔다. 대견했다. 대인관계능력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친구들의 행동이나 시속에 묻어나오는 결과는 만족스럽지만 검사결과도 좋기를 바라며 솔직하게 체크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쓰는 시여서인지 그동안 느꼈던 친구와 시를 주제로 한 시가 많았다. 헤어 집에 아쉬움을 담은 인상적인 시가 있어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다. 길아저씨와 손아저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재미있는 과자 따먹기 게임을 하였다. 서로를 의지하여 미션을 수행해서 돌아오는 친구들의 표정이 밝아져서 활기차게 수업을 마쳤다.			
기타 의견	수업에 아쉬움을 전하는 친구들, 계속 하자는 친구들, 수업의 베프가 생겨난 듯 하였고 모든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 행복했다.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친구들과 함께	차시	12	시간	90분
세부 목표	○ 전체 차시를 책거리하며 정리하고 자유롭게 마무리한다. ○ 내가 쓴 시를 퇴고하고 의견을 나눈다.				
선정 자료	▶ 1차시~11차시에 이용한 힐링스토리, 개인별 시 원고				
준비물	힐링스토리, 습작노트, 프로그램 소감문, 시, 필기도구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30')	여러분, 안녕하세요. ① 힐링스토리 14편 기억해 보기 - 이 이야기 중 어떤 것이 기억에 남나요? - 힐링스토리를 들어 본 적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 힐링스토리가 친구문제해결에 도움이 된 경험 있었나요? ② 힐링스토리 하부르타 돌아보기 - 지금까지 활동한 활동지를 찾아보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하부르타에 대해 소개합니다. - 못다한 질문을 들어봅니다.				
전개 (50')	③ 시 퇴고 하기 - 개인별 시 파일로 정리하고 인쇄해서 나눠줍니다. - 퇴고란? 글을 지을 때 문장을 가다듬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시인들도 퇴고를 꼭 거친다고 합니다. 우리 꼬마시인도 그 중요한 과정을 놓칠 순 없죠? 입말로 읽어 보았을 때 느낌이 이상하고 내가 생각했던 내용이 아닌 다른 글로 쓴 것이 있다면 선생님을 불러주세요. - 마음에 들지 않은 시들은 체크하게 합니다. ④ 프로그램 소감문 작성 - 친구관계 프로그램을 활동을 한 후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 프로그램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된 점은 무엇이 있나요? - 친구관계가 달라진 점 있나요? - 성심성의껏 읽으며 작성하도록 합니다. ⑤ 선생님에게 편지 쓰고 책거리하기 - 11차시 동안 선생님은 친구들에게 편지를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로 편지를 받고 싶어요. - 편지를 쓰고 신나고 재밌는 책거리를 합니다.				
정리 (10')	⑥ 전체프로그램 느낌 나누기 ⑦ 하부르타 및 시에 대한 생각 나누고 끝인사				



활동지 ①

힐링스토리프로그램 소감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리니? 내 마음이 자라는 소리가?’ 프로그램 활동을 한 후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들리니? 내 마음이 자라는 소리가?’ 프로그램을 통해 나에게 도움이 된 점은 무엇인지 적어 봅니다.

‘들리니? 내 마음이 자라는 소리가?’ 프로그램을 마치고 친구관계에 있어 달라진 생각이 무엇인지 적어봅니다.



12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친구 로그인! 절교? 로그아웃!!		
	강 사	허 정 희		
	대 상	초등 3학년 ~ 6학년		
	활동기간	8월 13일 ~ 11월 4일	총 차시	12
	장 소	석수골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11월 4일 (목요일) 16:00~ 17:30	1. 힐링스토리 14편 돌아보기 2. 힐링스토리 하부르타 돌아보기 3. 시 퇴고 하기 4. 프로그램 소감문 작성 5. 선생님에게 편지 쓰고 책거리하기			총 8명
자체평가	지금까지의 힐링스토리 14편을 이야기하며 11차시의 수업을 되돌아보았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재미있었다고 했다. 시는 11차시 동안 125편이 완성되었다. 각자의 시를 나누어주고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과 잘못 쓴 곳을 체크하고 같이 퇴고를 했다. 시를 읽어보며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시를 어떻게 쓸지 몰라 한 줄도 못쓰던 친구가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빚대어 시를 쓰게 되었다. 대인능력검사 결과는 사전 사후 총점은 486점에서 573점으로 총점은 87점 그리고 평균 14.7점 상승했다. 관계맺기, 의사소통, 문제해결의 영역에서 모두 향상되었으며 사전 점수가 낮았던 문제해결능력이 평균 6점 이상 상승하여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학생들의 소감문을 보면 ‘친구와 친해지는 법, 만약에 싸우면 먼저 사과하는 법, 친구를 잘 대하는 방법, 시를 잘 쓰는 방법 등을 알게 되었고 싸움이 줄어들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이 생겼으며 동생과 오빠와의 싸움도 줄어들었다. 친구관계가 좋아졌다. 친구관계의 이야기를 들으며 직접해보니 외향적으로 변한 거 같다. 새로운 친구가 많이 생겼다.’는 의견과 함께 모두 수업에 감사를 전했다. 친구들에게 편지를 받았다. ‘수업을 받고 꿈이 생겼어요. 쌤 같은 선생님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른 프로그램은 자주 빠진다고 했는데 이건 정말 맨날 맨날 하고 싶어요. 제가 이 수업에서만 활기찬가봐요. 정말 고마워요’ 등 많은 내용의 편지를 보고 많은 사랑을 오히려 받은 거 같아 많은 감정이 오갔다. 친구들과 책거리를 하고 다시 볼 수 있는 날을 기억하고 헤어졌다.			
기타 의견	친구들의 시를 퇴고하고 친구들의 시집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다시 만날 그 날이 기다려진다.			

11, 12차시 활동 사진

